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心 희망찬 마음=
: 마음심



세심

꼼꼼하게 주변을 두루
살필 줄 아는 너른 마음

深 뜻깊은 오늘+
: 깊음심



審 살피갈 내일!
: 살필심

2019
02

Vol. 513

2019.02



성공을 위해서는 세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보다는 주변을 돌아보고 나와 함께 걸어갈 인생의 파트너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걷는 인생보다는 훨씬 즐거워질 것입니다. 월간 <교정>은 함께 걷는 길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좌측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월간 <교정> 참여 코너의 신청, 낱말퀴즈 정답 응모, 독자 사연 & 독자 의견 송부 등이 가능합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9년 2월호 (통권 513호) 63권 2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찬 마음 =

Contents

04
신년 업무보고
2019년 법무부 교정본부
중점추진 정책

06
마음을 열다

08
테마를 넘다
마음을 씻어
매미와 꿀의 맑고 깨끗함을 닦다

10
사람을 읽다
세심하게 또 든든하게
교정공무원의 자부심을 복돋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승성신

14
역사를 품다
민중의 삶을 향상시킨 세심한 가르침
정약용의 세심

16
추억을 담다
교정인에게 들어보는 '세심'



뜻깊은 오늘 +

18
교정은 행복을 심고
아름다운 선율에 행복을 실어 보내다
포항교도소

22
영화 같은 하루
봄의 미소를 담은 5인 가족의
1박 2일 호캉스

26
일상 상담소
통신비 지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요?

28
마음 나침반
당신은 세심한 사람인가요?

30
시간을 달리는 교정
조선시대로 간 철수, 형벌 제도를 살피다

32
여행 따라 잉글리쉬
샌프란시스코 관광지 6 + 출입국 시 필요한 영어 표현

36
신조어백과
TMI & 언택트

38
글로벌 핫클릭
영국, 6개월 이하 형 폐지 외



살펴갈 내일!

40
여민 교정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을 만들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44
교정 희망의 백일장 I
욕망과 권태 사이
12월 12일 오후 5시경

46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
원망을 희망으로 돌려준 감사한 분들

48
교정을 말하다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下)

55
국민이 전하다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56
NEWS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들

64
낱말퀴즈

65
유머시리즈

66
독자의 소리





2019년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2019년 법무부 교정본부 중점추진 정책

01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교정시설 확충 및 가석방 확대

• 교정시설 신·증축 및 리모델링

- 교정시설 이전·신축
- 노후 교정시설 리모델링

• 가석방 확대

- 모범수형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가석방 확대
- 취업조건부 가석방 심사 시 10% 이내 범위에서 형집행률 완화

02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현황관리 및 지원제도 안내

- 신입 수용자 입소 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사항 교정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
- 브라미방송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수용자에게 안내
- 보호요청에 대한 면담 후 자녀 인적사항 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

• 관계기관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 접수된 수용자 자녀에 대해 직접 지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협력기관에 통보하여 보호조치

• 긴급 지원체계 활용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교정기관은 교정위원, 직원회, 관련 법인 등에 긴급 보호 요청



특정 범직자에 대한 치료과정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03



- 가학적·변태적 성범죄자 등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심리치료 외 100시간의 특별과정 신설
- 출소 전 추가 심리치료 실시
-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해 현재 운영 중인 심리치료 외 60시간의 개방형 과정 신설
- 증상 재발 시 반복 심리치료 실시

- 심리치료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재복역률 및 재범 유발요인 등 결과 분석
-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 마련
- 프로그램별 재범위험성 변화 분석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 도입

04

-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대상
-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을 통해 기업체와 채용약정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동의서 제출
- 교정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등록된 사업체(약 2,400개) 취업 알선
- 가석방 기준 10% 이내 범위에서 형 집행률 완화, 조기 출소·취업

- 가석방 기간 내 취업 유지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위반 시 가석방 취소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숙식 제공·신원보증 등 사회정착 유도



교정 민원서비스 고도화 지속

05

- 인터넷 화상접견·스마트접견 통합 운영
- 통합운영 시 기기 일원화
- 민원인 예약 기능 추가 및 자동녹화 녹음 기능으로 교도관 참여 불요

-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 형사사법포탈 접속, 본인인증 완료 후 발급
- 수용증명서는 수용자가 동의한 사람에 한해 인증 절차 후 발급



세심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내 병사들은 밀림처럼 떠오르고, 병사들의 처와 딸들은 붉은 꽃잎처럼 빛나야 한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루터기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고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 칭기즈칸의 빌리크(격언) 中 -

12세기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 그가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력한 리더십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그리고 빼놓지 않는 것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함과 병사들의 가족까지 돌볼 줄 아는 세심한
배려다. 그로인해 병사들은 충성을 다해 그를 따랐고, 그 결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즘 시대는 성과주의 시대다.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경쟁하고, 또 때로는
나와 함께하는 동료 혹은 선후배에게 본의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한다. 물론
핵심에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옛날 칭기즈칸처럼 그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배려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사회, 바로 작은 것도 두루 살필 수
있는 세심함에서 나온다.

마음을 씻어 매미와 굴의 맑고 깨끗함을 닦다

마음처럼 짐작하기 어려운 것도 없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흔히 말하지만 마음먹은 것이 사흘을 가기도 어렵다. 마음은 구름처럼 잘 변하고, 끓는 물처럼 요동친다. 그리고 닦지 않은 거울처럼 잘 더럽혀진다.

마음이 더럽혀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잡다한 더러움이 세속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당나라에 한산과 습득이 살았는데, 한산이 습득에게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비웃고, 싫어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습득이 말하길, 꽤넘치 말라고 조언을 했다. 참고, 따르고, 견디고, 양보하고, 피하고, 공경하면서 그냥 살라고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늙은 사람을 욕하거든 늙은 사람은 그냥 그렇다 하고, 또 누군가가 늙은 사람을 때리면 스스로 쓰러지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비방과 기만과 욕설과 비웃음과 천시와 증오와 속임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잡다한 세상의 더러움이 오더라도 스스로 마음만 잘 간수하면 그것들은 그냥 자신을 지나쳐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신의 마음을 잘 간수하고, 자신의 마음을 쉬게 하면 모든 장애가 사라진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게 되면 원한이 풀어지지도 않고, 원한의 되갚음이 그치지 않는 까닭이다. 원망하는 마음을 쉬 때 원한은 풀어지고 사라진다. 마음을 쉬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마음에는 어떤 더러움도 들어오지 못한다.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요동치는 것은 남과 내가 맺고 사는 관계에서 대체로 생겨난다. <범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이 했던 말았건 상관하지 말라. 다만, 자기의 허물과 게으름만 살피라. 다른 이의 거친 말도 이미 했거나 하려는 남의 행위는 보지 말고, 이미 했거나 하려는 자신의 행위만 살피라.”

우리는 나를 돌보지 않고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관심은 남의 잘못된 행위를 찾기 위한 관심일 경우가 많다.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은 방치한 채로 말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을 방치하면 자신의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킬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무수히 자주 가질 수 있다. 매순간 혹은 하루의 끝, 월말, 계절이 바뀔 때, 해가 넘어가고 새해가 올 때 등 무수히 많은 때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마음은 고도의 정화력으로 마음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놓는다. 그것을 우리는 ‘세심’의 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 조선 후기 이덕무의 글을 읽고 있는데 마음과 세심에 관한 좋은 글이 많다. 이덕무는 호(號)가 여럿이었다. 그중에 하나가 ‘선굴당(蟬橋堂)’이라는 당호였다. 매미와 굴의 맑고 깨끗함을 사모하여 그렇게 지었다.

이덕무의 문장에 이런 대목들이 있다. “세상을 나서면 온통 욕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낱알처럼 마음을 모으고, 두터운 땅을 밟으면서도 마치 빠짐을 염려하듯 한다면 무슨 욕됨이 있겠는가?” “마음가짐을 너그럽고 안정되게 지니면 때로 추위와 더위조차도 침입하지 못한다.” “분수를 지켜 편안해하고, 그때그때 즐거워하며, 욕됨을 참고서 너그러울 수 있다면 이를 일러 큰 완성이라고 한다.” “맑은 선비의 가슴 안에는 얼음이 한 곡 들어 있다. 기이한 선비의 마음속에는 심장과 폐가 들쭉날쭉 모두 대나무와 바위를 이루고 있고, 대인의 가슴속은 텅 비어 아무 물건도 없다.” 이덕무가 가르치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고, 조심하고, 자기의 신분에 맞게 하고, 후하게 인심을 사용하라는 당부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오탁이 침입하지 못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이 되도록 자신을 자꾸 돌이키는 일이 곧 세심의 일이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가닿고 싶은 어떤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마음을 맑게 한다. 내가 보아온 풍경 가운데 나의 마음을 환하고 안정되게 해 준 풍경과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가령 붉은 동백이 핀 숲에 가서 동박새의 울음소리를 듣는 상황이라든지, 겨울 담벼락에 내리는 따뜻한 별을 상상한다든지, 꽃이 환하게 핀 들판을 떠올려본다든지, 시원한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것을 생각한다든지 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소란을 멎고, 탁함을 씻게 된다. 이덕무의 또 다른 산문인 ‘얼굴’이라는 글은 이렇게 되어 있다.

“눈썹과 이마 사이에 연연중 맑고 잔잔한 물과 먼 산의 기운을 띠고 있으면 바야흐로 더불어 고아한 운치를 말할 만하다. 그의 가슴속에는 돈을 탐하는 병통이 없다.” 이 문장에서 표현한 “맑고 잔잔한 물과 먼 산”처럼 마음이 유지되도록 한다면 어떤 탈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탈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또한 세심의 일이다.

문태준(文泰俊)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났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시 「처서(處暑)」 외 9편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시집으로 『수려거리는 뒤란』, 『맨발』, 『가재미』, 『그들의 발달』, 『먼 곳』,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내가 사모하는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등이 있다. 노작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애지문학상, 목월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승성신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퇴직자들의 우울증을 부추기는 주된 요소 중 하나는 '소속의 부재'라고 한다. 재직 당시에는 별거 아니었던 명함 한 장의 무게가 퇴직 이후의 삶에서 목직한 상실감으로 드러난다는 것. 다행히 교정공무원이라면 퇴직 후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내도 좋다. 퇴직 교정공무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현직에 이어 퇴직 이후에도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복돋는 데 열정적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승성신 회장을 만나보았다.

세심하게 또 든든하게 교정공무원의 자부심을 복돋는다

교정공무원이라는 매우 특별한 공동분모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의 출발점은 1963년에 결성한 '교우회'였다. 당시 기관장(교도소장) 출신의 퇴직 교정공무원들이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교우회는 20년 후인 1983년 '교정동우회'로 확대되었다. 기관장 출신으로 제한을 두었던 교우회와 달리 교정동우회는 직급에 상관없이 교정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게끔 문턱을 낮추었다. 교정동우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로 어엿한 법정단체의 모습을 갖춘 건 지난 2013년. 법무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성장 역사는 뚜렷한 셈이다.

“조직이 커지면서 교정동우회의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친목 도모에 주력했다면, 지금은 친목을 통한 유대강화는 기본이고 사회봉사, 교정시설에서의 위원회 활동에 이어 현직 교정공무원 대상의 지원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취임과 동시에 반가운 변화를 이끌고 있는 승성신 회장은 그동안 교정동우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부분까지 사업영역으로 끌어안음으로써 특유의 세심함과 진취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근래 교정동우회가 펼친 사업을 들여다보면 좀 더 선명해진다. 먼저 교정동우회는 지난해 법무부로부터 교정공무원의 직무 역량 향상과 승진시험에 활용되는 교정실무 교재 출간에 대한 저작권 사용허가를 획득해 위탁 및 제작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정회원인 퇴직 교정공무원의 복지와 권익을 위한 활동에서 벗어나 명예회원인 현직 교정공무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도 미약하나마 발을 들여놓았다.

“지난해 교정공무원들의 전통적 축제인 전국교도관무도



대회 때 '사랑의 푸드트럭'을 운영해 후배 교정공무원들과 그 가족이 무상으로 간식과 음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말에는 격무지에서 애쓰는 교정공무원 10명을 추천받아 잠시나마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가족동반 여행)'을 제공했습니다. 재정 상황상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도 명예회원들까지 아우르는 교정동우회가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물론 정회원인 퇴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도 좀 더 살뜰하게 챙겼다. 하나의 예로 몸이 불편해 장기간 입원 중인 정회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소정의 위로금과 함께 지회 차원의 병문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랜 기간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만큼 수용자들의 가족을 보듬고 위로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거창하진 않지만, 교정공무원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가능한, 세심한 마음을 동반한 사업들로 잔잔하되 분명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73주년 교정의 날 기념

2018. 10. 26. 정부과천청사 대강당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 그 중심에서

사실 승성신 회장은 그동안 가는 곳마다 변화를 몰고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변동 수가 잦았다. 3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교정공무원 생활을 통틀어 가장 몽클한 이력인 '마지막 교정국장이자 초대 교정본부장' 외에도 광주, 제주, 대구, 춘천 등 전국구라 불릴 만큼 다양하게 근무지를 옮겨 다닌 그는 유독 '이전'과 인연이 깊다. 6급 교감으로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던 1986년, 수원 시내에 있던 연수원을 용인으로 이전하는 데 기여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발령받은 서울구치소에서는 스케일이 확연히 다른 이전을 주도했다. "당시 서대문에 있던 서울구치소를 의왕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이라 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녹록치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시 4,000여 명에 달하는 수용자들을 사고 없이 이동시키는 거였죠. 더욱이 매일 100명 정도가 형을 마치고 출소하고, 다시 그만큼의 인원이 수감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수 없이 일처리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꼬박 한 달 동안 준비해 이전 당일 관광버스 7대씩 3개 팀으로 나누어 신속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일을 마무리하고서야 비로소 긴장을 놓을 수 있었죠." '이전'의 역사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서울지방교정청 재직 시절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평촌으로 이전했고, 법무부 교정국장으로 있을 때는 부처별로 세종시로 옮긴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법무부는 예외였다. 그런데 승 회장의 발령과 더불어 과천청사 1동에 있던 법무부 교정국을 5동으로 옮기라는 지시가 떨어진 일도 있었다(지금은 다시 1동으로 돌아갔다). 건물 이전까진 아니지만 변화는 퇴직 후 들어간 법무부 산

하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시절에도 이어졌다.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만 해도 한국갱생보호공단이었으나 '갱생'의 어감을 이유로 지금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마치 '마지막 교정국장이자 초대 교정본부장'의 후속편처럼 '마지막 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이자 초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된 것이다. 다행스러운 건 그가 가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 생겨났던 변화들이 모두 더 나은 쪽을 향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 여러 번 변화의 중심에 섰던 경험을 연료 삼아 승 회장 자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안주하는 일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회원 1만 명의 교정동우회가 목표

승성신 회장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권투 시합에 비유하곤 한다. 베트남전 참전이 1라운드라면, 30여 년의 교정공무원 시절은 2라운드, 교정공무원 출신의 첫 이사장으로 주목받았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몸담았던 때를 3라운드라고 말한다. 공단 이사장을 끝으로 오랜 공무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후 경기대 교정보호학과를 시작으로 대구대 경찰행정학과를 거쳐 법무연수원으로부터 교정공무원 출신 1호 석좌교수로 초빙돼 2년 임기를 채운, 말하자면 가르치는 데 열중했던 이 시기를 4라운드로 구분한다. 그러니 지난해부터 맡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회장으로서의 활동은 5라운드에 해당하고, 권투 시합이 과거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 그에게는 7라운드의 삶이 남아있는 셈이다. "우연히 '나이 먹은 사람이 해야 할 33가지'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는데, 가장 첫 번째와 마지막 메시지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군요.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와 '떠날 때는 가져갈 것이 없다'였는데요. '움직이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말을 통해 어떻게 움직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왔다면, '떠날 때는 가져갈 것이 없다'는 메

시지는 교정동우회 회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남길 것인지 항상 고민하게 합니다."

승 회장은 30여 년의 교정공무원 시절 못지않게 퇴직 후에도 단 하루도 집에서 점심을 먹지 않을 만큼 바쁘게 움직여왔다. 올해로 10년째 국선도 단전호흡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술과 담배를 끊은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배우기 시작한 기타 연주는 어느덧 6년째에 접어들어 3년 전부터는 매년 열리는 전국교도관음악회 무대에도 서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공부를 위해 방송대 영어영문학과 3학년에 편입해 어학에도 도전하고 있다.

사실 승 회장의 남다른 열정은 교정공무원 시절 일궈낸 성과를 통해서도 익히 알려져 있다. 그는 교정본부 출범을 비롯해 형 집행법 전면 개정을 주도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정시설만의 전국망 방송시스템을 도입했다. 4부제 근무체계 전환을 통해 격무에 시달리던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을 대폭 개선한 것도 승 회장이었다.

"돌아보면 어느 자리에 있든 항상 그에 맞는 최선의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또한 그저 임기만 채울 생각이었으면 회장직을 맡지 않았을 겁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각오에 걸맞게 승 회장은 교정동우회를 더 탄탄하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임기 내 3,440명(2019년 1월 1일 기준)에 불과한 정회원 수를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교정동우회가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담금질할 수 있는 따뜻하고 든든한 소속이 되길 바라고 있다.

현직 교정공무원들에게 건네는 당부 메시지

1. 문무(文武)를 겸비한 교정공무원이 되어라

교정공무원은 단순히 행정업무능력만 갖춰서는 곤란하다. 연령대와 성격, 직업, 경제력 등이 천차만별인 수용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교정 교화하는 직업인만큼 업무능력은 기본이고 체력과 여유, 융통성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2. 교정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라

군인이 전방을 지킨다면 교정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진다. 사회적 인식과 상관없이 떳떳하게 제복을 입어라.

3. 선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라

현직에만 매몰되지 말고 시야를 넓혀 교정동우회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선배들과의 유대에도 관심을 가져라. 특히 교정동우회는 별개의 단체가 아니라 교정공무원 퇴직 후 자연스럽게 소속될 수 있는 곳임을 잊지 말자.

4. 교정청으로의 승격에 대한 의지를 가져라

1만6,000여 명에 이르는 교정공무원의 규모나 교정본부가 출범한지 10년이 지난 조직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교정청으로 승격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직에 있는 교정공무원들도 승격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



민중의 삶을 향상시킨 세심한 가르침 정약용의 세심

행정가, 경제학자, 실학자, 시인, 발명가. 모두 다산 정약용을 일컫는 말이다. 그가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가능하다.

참고서적 :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게 하라. 흠휼신서' (손주현 엮음 / 파란자전거)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박석우 편역 / 창비)



정약용

세심한 관찰력으로 억울한 죄인의 누명을 벗기다

“사람의 생사가 나 한사람의 살림에 달려 있으니
밝게 살피지 않을 수 없으며
사람의 생사가 나 한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으니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약용 ‘목민심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정약용의 직함이 하나 있다. 바로 정약용은 조선 후기 유능한 과학 수사관이기도 했다는 사실. 그가 수사와 형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황해도 곡산군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이웃 고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서부터 비롯된다. 수안 군수가 1차 조사를 끝내고 2차 조사로 이웃 고을 수령인 정약용이 확인할 차례가 왔다. 사건 조사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던 중 정약용은 수사 기록과 증인들의 증언 간에 모순을 발견하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그로 인해 살인범으로 몰렸던 민성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약용은 형조참의에 임명된 후 정조의 특명으로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집중한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조의 후원 아래 정약용은 특유의 세심한 관찰력을 재수사 과정에서 활용해 많은 백성들이 누명을 벗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이렇듯 정약용은 수령으로서, 형조참의로서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부실하게 수사하는 수령이 너무 많음을 개탄했다. 정조 승하 후에 그는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이후 유배지에서 이때의 경험을 빌어 <흠휼신서> 저술을 시작한다. ‘흠휼’(欽欽)이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뜻이다.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는 걸까? 행여 잘못하여 백성들에게 원통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다. 이외에도 유배 기간 동안 백성에 대한 애정으로 정약용은 후대를 위한 세심한 가르침을 남긴다. 수령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양한 예시를 들며 제시한 <목민심서>, 경제와 행정 제도의 개편을 논한 <경세유표> 등의 책을 완성했다.

가족과 제자를 향한 세심한 배려심의 흔적,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너희 형제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방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항상 살피고,
요 밑에 손을 넣어보고 차면
항상 따뜻하게 몸소 불을 때워
이런 일은 종들에게 시키지 않도록 해라.”
-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

흔히 역사는 정약용을 철학자, 발명가, 저술가 등으로 기억하지만 한편으로 그는 사랑하는 이들과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조언해주던 아버지이자 스승이기도 했다. 위의 편지 내용은 가족과 떨어져 유배지에 홀로 지내고 있던 정약용이 추운 겨울밤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에 대해 염려하여 아들에게 남긴 충고의 일부이다. 가족에 대한 그의 세심한 배려심이 돋보이는 구절이다. 그것도 ‘작은 효행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하며 새벽에 종들을 깨워 귀찮게 하지 말고 아들들이 직접 행하길 원했다. 또한 정약용은 외동딸에게 치마폭에 그림과 시를 써서 보내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유배지에서 가족들 외에도 자신의 제자들(윤종삼, 윤종진 등)에게 장서의 편지를 쓴다. 여기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의 세심한 마음 씀씀이다. 그는 편지를 받는 인물마다 필요한 조언을 적절하게 써 내려갔다. 18년 동안 유배지에서 그가 가족과 제자들에게 쓴 편지는 오늘날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저서로 남아 있다.



정약용 '목민심서' ▶

교정인에게 들어보는
‘세심’

2월호 <교정>지의 테마주제는 ‘세심’입니다.
세심은 국어사전에서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여 빈틈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정말 꼼꼼한 것이 세심의 전부일까요?
이번 호 주제인 ‘세심’과 관련해 독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알아보았습니다.

세심하다는 것이 그냥 꼼꼼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주변 모든 것들을 두루 살필 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세심하게 주위를 둘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교도소 교위 김태일〉

이번 호 주제인 ‘세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교정지’를 떠올렸습니다. 책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세심한 작업일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항상 독자들을 위해 세심하게 교정지를 만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구치소 교사 이대원〉

어릴 때부터 소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지만 한편으로는 세심했던 것도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스스로 대범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소심한 ‘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주교도소 교감 권익선〉

가족들에게 언제나 세심한 남편, 세심한 아빠가 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직장 일이 바쁘다고 가족들에게 무관심해지면 그만큼 가족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이 외롭지 않을까요? 독자분들도 늘 가족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길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교도소 교위 이정훈〉

사랑하는 딸이 외손녀를 선물했습니다. 세심하고 금지육업으로 기른 딸이었기에 더욱 기쁘네요! 제 엄마를 닮은 외손녀가 늘 건강하게 잘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일반독자 황복희 대전시 대덕구〉

수용동 근무를 하면서 안색이 좋지 않은 수용자를 발견하여 의료과로 동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맹장염 초기여서 병원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 이후로 조그마한 표정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홍영삼〉

꼼꼼이 생각해 보니 교정인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내 옆의 동료들과 함께 웃으면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동료들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동료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장흥교도소 교사 서행관〉

* <교정지>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호 테마 주제와 관련된 독자분들의 에피소드나 관련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담다'의 참여는 마지막 페이지의 엽서와 메일 그리고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아름다운 선율에 행복을 실어 보내다

포항교도소

셰익스피어는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분위기 좋은 음식”이라고 했다. 이번 달, 이렇듯 좋은 음악으로 교정본부가 행복을 배달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포항교도소’. 관리 난이도가 만만치 않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포항교도소 사람들에게 전해진 행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QR코드 스캔
시 공연을 영상
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음악 보따리, 간식 보따리를 한가득

꽤나 쌀쌀한 포항의 겨울. 늦은 오후가 되자 슬슬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행복을 배달할 준비를 마친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의 마음은 한여름처럼 뜨겁고 봄처럼 설렌다. 교정본부가 포항교도소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두 가지이다. 팝페라 가수 아리현이 들려줄 아름다운 음악과 달달한 간식이 바로 그것. 늦은 오후면 흔히 말하는 '당' 떨어질 시간. 그 시간에 음악회가 시작되기에 이왕이면 귀는 물론 입까지 즐거울 수 있도록 마련된 선물이다. 총무팀의 도움으로 먼저 배달된 간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렌지주스와 초코과자, 크래커 등 다양한 과자류가 박스에 담겨 강당 입구에 나란히 놓이고 공연을 하기 위한 음향테스트도 순조롭게 착착 이루어진다.

관건은 바쁜 업무시간과 교대시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곳을 찾아줄까였다. 그런데 웬일, 공연시간이 가까워오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교도관들이 줄줄이 입장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준비된 간식 테이블을 보고 활짝 웃으며 손에 한가득 과자와 음료를 챙겨가는 모습은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해맑고 유쾌해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덩달아 행복이 피어오른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를 통해 포항



교도소 직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쁘고 반갑다"라고 인사를 한 교정기획과 윤종웅 교위는 "2016년부터 교정본부에서 매월 진행하는 이벤트인 '교정은 행복을 신고'에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으니 잠깐이나마 편안하게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해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힐링과 위로의 시간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다. 팝페라 가수 아리현이 소개되자 장내를 가득 채운 70여 명의 교도관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화려한 은빛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가수 아리현은 "멀리서 왔는데 큰 환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다양한 장르로 여러 곡을 준비했으니 즐겁게 열린 마음으로 공연을 감상해달라"고 인사를 건네자 교도관들 모두가 다시금 환영의 박수를 쳤다.

그가 준비한 첫 번째 곡은 <아름다운 나라>이다. 사랑 사랑 가벼운 춤사위와 함께한 노래는 더없이 웅장하고 아름다워 음악회의 문을 활짝 열기에 딱인 곡이다. 노래를 마친 아리현 씨는 "너무 고요해서 긴장이 됐다"며 "공홀의 마음으로 봐달라"고 당부해 객석에서 가벼운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어지는 곡은 사계절에 관한 노래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사계절을 노래로 표현한 이 무대에서 아리현 씨는 <고향의 봄> <Over the Rainbow> <노을> 겨울왕국 OST <Let it go>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는데, 특히 <고향의 봄>을 부를 때는 앞쪽에 앉아있던 직원에게 마이크를 돌리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총무과장이 노래를 열창하는 사건(?)이 벌어져 모두가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어서 그룹 아바의 노래 <Thank you for the music>이 울려 퍼진다. 음악과 춤 없이 우리가 무엇이겠냐며, 음악에 감사함을 전하는 이 노래에 실린 행복에 모두가 고개를 까딱이고 몸을 흔들며 감상을 한다.

마지막 곡은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다. 가수가 몇 번이나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다들 또 웃음이 터진다. 그리고 역시나 눈치 빠른 교도관들답게 곡이 끝나자마자 "앵콜!" "앵콜!"을 외쳐 다시 가수를 무대로 불러냈다. 아리현 씨가 불러준 진짜 마지막 곡은 무반주로 불러주는 <10월의 어느 마지막 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가곡의 아름다움에 교도관 모두가 잔잔히 빠져들고 후렴구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근사한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딱딱한 일상에 큰 위로가 됐다"며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한 이정화 간호주사보, "원래 팬이었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다. 지친 업무에 큰 활력을 얻은 시간이었다"고 고백한 김규은 교도의 소감에 행복을 배달한 사람들 모두가 힘을 얻는다.

맛있는 당과 근사한 음악으로 오감을 충족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이 포항교도소 모든 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행복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 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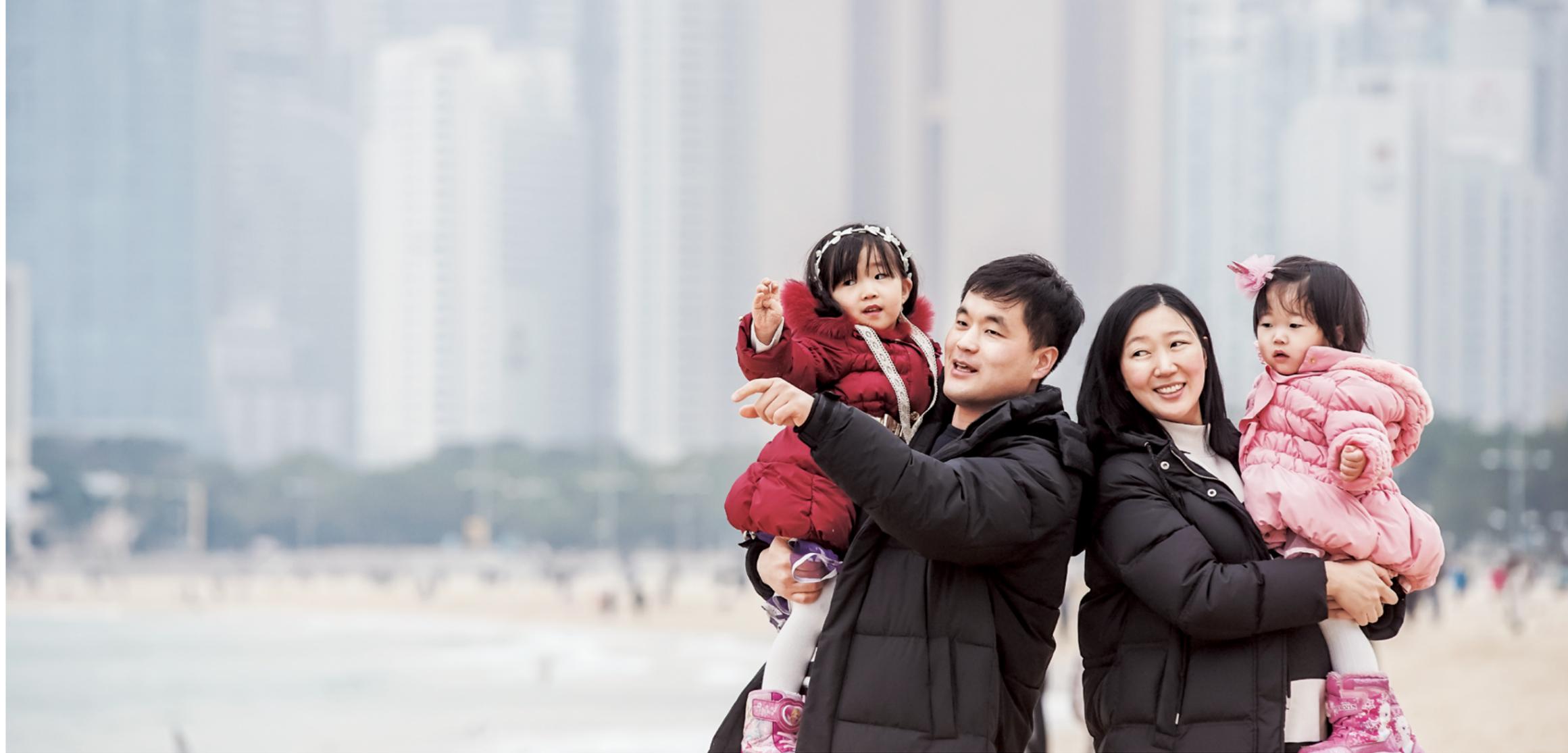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봄의 미소를 담은 5인 가족의 1박 2일 호캉스

추위가 사그라든 2월, 여기 다가오는 봄의 온화한 미소를 담은 가족들이 있다. 듄직한 아빠 이정훈 교위, 사랑스러운 아내 이주혜씨, 애교쟁이 첫째 헤리, 수줍음을 잘타는 둘째 헤나 그리고 곧 태어날 뱃속의 셋째까지— 이들은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영화 같은 하루'를 보내고 왔다.



세 자매의 아빠, 이정훈 교위

'호텔'과 '바캉스'가 합쳐진 개념, '호캉스'. 주로 소수의 직계가족이나 혹은 혼자 호텔에서 편안하게 하룻밤을 보내는 최신 여행 트렌드이다.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관계 틀과 규범이 해체되고 있는 요즘, 호캉스는 직계가족들과 떨어져 가족끼리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요즘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기도 한다.

여기 저출산 시대에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이정훈 교위 가족이 있다. 부산교도소에서 13년째 근무 중인 이정훈 교위는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온 부산 토박이다. 7년 열애한 아내와 올해 결혼 8년 차에 맞아든 이정훈 교위는 평소 근무 중 '교정'을 자주 읽으며 이번 코너에 당첨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고 한다.

현재 이정훈 교위는 부산교도소 중앙통제실에서 CCTV를 감독하는 업무를 2년 6개월째 수행 중이다. 수용자를 직

접 대면하지 않고 35개의 모니터를 계속 보며 이상 상황이 없는지 체크한다고. 그는 일상 속 축적된 스트레스를 사내 야구, 사진 찍기 등 취미 활동으로 해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가정적인 남편이기도 하다. 20대 추억의 대부분이 아내와의 추억이라는 그는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죠. 아내를 소개해준 제 친구도 비슷한 시기에 여자 친구를 사귀었는데 저희만 이렇게 결실을 이루게 되었네요." 아내의 매력을 한마디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단아함'이라고 말했다.

바다와 교감하는 시간

호텔에서 해운대 백사장까지는 걸어서 단 2분도 걸리지

않는다. 계절에 한 번씩 아이들과 바다를 오는 편이지만 둘째 헤나에게 있어 오늘은 처음으로 '겨울 바다'를 보는 날이기도 했다. 2월 초순 해운대. 몰려든 인파로 모래사장 너머 발 디딜 틈도 없이 북적북적한 여름 바다와는 달리, 겨울 바다는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이다. 날씨는 흐리지만 바람은 찾아들어 해안가를 따라 소소하게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와 바다다!" 부산에 살아도 바다가 그렇게 좋을까. 첫째 헤리는 해안가에 들어서자마자 바다 쪽으로 폴짝폴짝 뛰어간다. 둘째 헤나는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씩씩하게 계단을 옆으로 기어서 내려갔다. "들어보세요! 바다 소리가 들리죠?" 모래사장에서 달팽이 껍질만한 소리 껍데기의 깊게 파여진 홈을 귀에 대며 '바다 소리'에 폭 빠져든 첫째 헤리. 낮잠을 못 자 내내 표정이 굳어있



있던 둘째 혜나도 어느새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변가 모래를 사부작사부작 만지며 연신 '바다 놀이'에 흠뻑 빠졌다. 평소 카메라로 아이들을 찍기 좋아하는 아빠는 핸드폰 카메라로 연신 아이들의 모습을 담는다. 어느새 갈매기들이 몰려와 아이들을 에워싼다. "갈매기에게 인사할까요?" 평소 부부는 조곤조곤한 말투의 존댓말로 아이들을 대한다. 아이들 스스로 존중받는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냐는 질문에 아이들의 아버지는 수줍게 말한다. "(아이들이) 공부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이에서 손을 잡고 바다를 거니는 혜리와 혜나. 이제 호텔 체크인할 시간이다. 이정훈 교위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려 '웨건'(휴대용 유모차)에 태웠다. "아이들을 이동시키기에 이만한 기구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에게 "이제 셋째까지 낳으면 웨건이 좁아지겠어요"라고 말하자 부부는 함박웃음을 짓는다.

구름 침대에서 아빠와 노는 아이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은 침대 위를 메뚜기처럼 뛰놀며 환히 웃음꽃을 피웠다.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정훈 교위. 아이들은 종일 같이 있어도 그렇게 '아빠 아빠' 부르며 연신 아빠를 찾는다. 이정훈 교위가 아이를 번쩍 옆으로 안아서 침대에 풍덩 빠뜨리면 호텔 침대가 구름이 되어 아이를 폭신히 감싸준다. 침대에 벌렁 누운 아이의 배를 살살 간지럼 피우며 어느새 이정훈 교위도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딸들과 함께 논다. 이를 지켜보던 부인 이주혜 씨가 말한다. "제가 언어적 소통을 담당한다면, 애들 아빠는 교감을 담당하고 있어요. 눈치가 빨라서 어떤 때는 저보다 아이들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캐치하는 거 있죠."

이내 첫째 혜리가 창문 쪽으로 달려가서 바다를 보며 연신 손뼉을 치며 환호성을 지른다. 불과 한 시간 전에 바다를 봤는데 또 좋다고 밖을 나가자고 한다. 이정훈 교위는 딸을 다시 번쩍 안아 행가래를 하듯 가볍게 아이를 들

었다 올린다. "제 키가 187이어서 이렇게 하면 애를 3m까지 올릴 수 있어요!"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또 해줘 또 해줘!"라고 조른다.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아내 이주혜 씨는 둘째 혜나를 재우기 위해 뽀로로 노래를 듣다. 소소한 데서 찾아오는 행복을 찾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고 했던가. 아이들과 부모의 교감의 현장.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 풍경 속에 '소확행'이 절실히 느껴진다.

해운대의 진면목을 발견한 계기, 호캉스

1박 2일의 달콤한 휴식을 마친 이정훈 교위는 "이번 호캉스로 지쳐있는 심신의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야외 풀장을 가장 좋아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천 온천탕에 누워서 밤하늘에 종종 박힌 별이며 폭죽 터뜨리는 광경을 볼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기회로 부산 토박이인 자신도 몰랐던 해운대의 명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먼저 해운대 대

표 빵집 '옵스'(OPPS)의 대표 메뉴 슈크림빵을 아침저녁으로 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야시장도 구경했다고. 알찬 하루의 마무리로 '다트로 풍선 터뜨리기 게임'에 우승하여 상품으로 인형을 받고 다음 날 아침,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갈매기들에게 새우깡을 주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정훈 교위. 그에게 있어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보낸 이번 호캉스는 겨울 바다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영화 같은 하루'는 가족, 친구, 동료 등 소중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마련된 엽서 또는 우측 QR코드, 아래 메일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참여 신청 메일 주소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통신비 지출,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나요?

이동통신비는 매월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고정지출비다. 때문에 이동통신비를 절약할 수만 있다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귀찮아서 미루는 경우들이 있다. 통신비는 알아두면 곳곳에 절약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이번 호 <교정>지에서는 통신비 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마트폰 구매 시, 선택약정 vs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스마트폰 구매 시 출고가 지원금을 받는 대신 월 사용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제도다.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많지 않아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요금제 구간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약정이 끝난 스마트폰도 선택약정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구매 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하지 않고 일시불로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잔여 할부원금에 대해 연 5.9%의 이자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단말기 값을 미리 완납해서 이자를 내지 않는 것도 좋은 통신비 절약 방법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요금제를 가입할 때 유료 부가서비스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킬러링 서비스를 비롯해 혹시 나도 모르게 유료 부가서비스가 가입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서비스가 있다면 바로 취소해 다달이 나가는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도록 하자.



가족 결합 혜택과 제휴카드 할인

이통 3사는 가족결합을 한 고객들에게 개인 가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데이터를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이에 가족 중 한 명이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저가 요금제에 가입해 총비용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휴 카드를 사용해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이통사들은 다양한 제휴카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2만 5,000원까지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제휴카드를 이용해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선택약정할인으로 월 6만 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월 통신비는 4만 8,000원이 된다. 또 할부금은 제휴카드 할인으로 월 2만 원대로 떨어지게 된다.

통신사 제휴카드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사용빈도가 낮은 카드를 해지하고 제휴카드로 대체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 장의 카드 교체로 매월 나가는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면 한 번쯤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장기 고객 혜택과 애플리케이션 활용

이통 3사는 2년 이상 자사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데이터 쿠폰을 지급하는 등 장기 가입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자신의 요금제가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면 잊지 말고 이용해 보도록 하자.

또한 잠금화면 앱을 이용해 매달 통신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L사는 잠금화면 광고 보기 적립금으로 통신요금 할인 또는 데이터 상품권 충전이 가능한 앱을 제공하고 있는데, 10포인트 이상 적립 시 매월 말 통신요금으로 자동 납부되고, 1,000포인트 이상 적립된 포인트는 수시로 데이터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K사의 경우 휴대폰 액정파손 보험과 잠금화면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를 론칭해 90일 이상 앱을 사용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액정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통신비는 현대사회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지출이다. 또한 그 지출 금액은 때때로 일반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하지만 알뜰한 방법으로 통신비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면 가계가 지는 부담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한 지출을 위해 통신비 절약 방법을 알아보고 부담 없는 스마트 라이프를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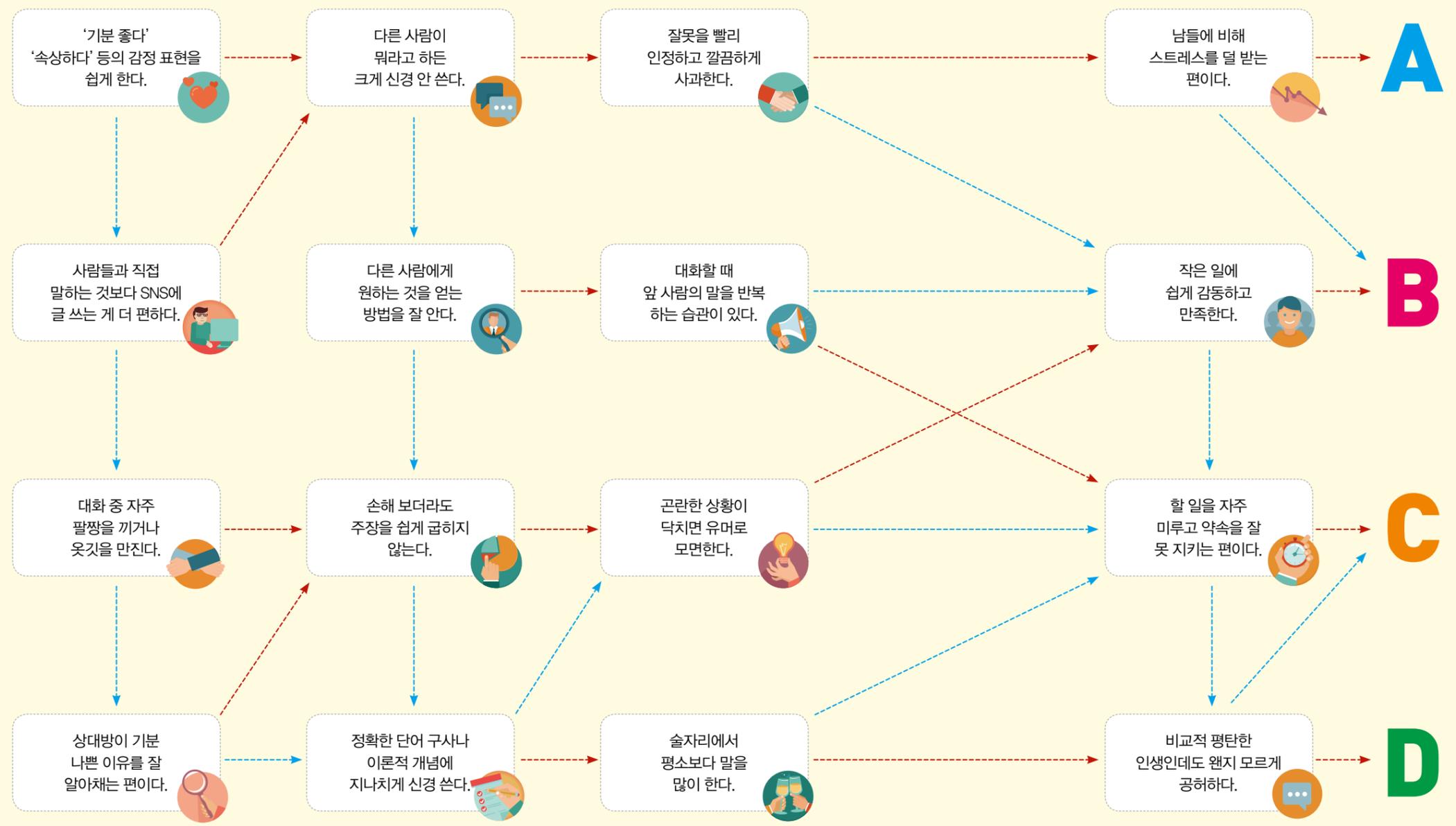
당신은 세심한 사람인가요?

→ YES
→ NO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속내를 훤히 꿰뚫는 이는 드물다. 열 길 물 속보다 더 알기 어려운 내 마음, 자신이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참고서적 <마법의 심리테스트>(나카지마 마사미, 이젠), <내가 말하는 진실, 내가 모르는 본심>(매릴린 케이건 외, 전나무숲), <거짓말의 비밀>(그레고리 하틀리 외, 북노마드)



이보다 더 솔직할 수 없다

화낼 때는 화내고, 기쁠 때는 소리내어 웃고, 잘못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타입.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군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당신의 최대 무기는 솔직함입니다. 단, 내 감정 표현에만 신경쓰느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세요. 내 진심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눈치 100단 센스쟁이

적당히 눈치를 볼 줄 알고, 솔직해야 할 때는 나설 줄도 아는 당신. 아마도 사회생활 잘한다는 평판을 받고 있을 테지요. 상황에 따른 적절한 화술과 처신 덕분에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지만 가끔은 할 말 다하고 사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있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씨는 칭찬할 만하지만, 기분 나쁘게도 무조건 미소 지을 필요는 없어요.

365일 코스프레 인생

진심은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당신. 패기 넘치는 신입사원 코스프레, 모르는 게 없는 능력자 팀장 연기를 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감정을 외면하거나 합리화하면 그 순간은 불편함을 벗어날 수 있지만 누적되면 일, 인간관계를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기 힘듭니다. 더는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또 다른 나? 누구냐, 넌

당신은 생각만큼 그렇게 솔직하지도, 상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받거나 오해받는 게 두려워 무의식적으로 '가짜 진심'을 앞세워 스스로 과보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보다 큰 문제는 당사자마저 가짜 진심을 진짜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솔직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자기감정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마음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보세요.

深 뜻깊은 오늘 + 시간을 달리는 교정 크림 스튜디오 해담

조선시대로 간 철수, 형벌 제도를 살피다.



세계적인 항만도시이자 국제도시 샌프란시스코 관광지 6 + 출입국 시 필요한 영어 표현

San Francisco

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부
 인구 852,469명(2014년)
 면적 601km²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비행시간 인천 → 샌프란시스코 약 10시간 20분
 샌프란시스코 → 약 10시간 20분

소개 태평양 연안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은 제2의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골든게이트에서 남쪽 서안에 위치한다. 시가는 반도의 북쪽 끝을 차지하며, 북쪽은 골든게이트 브리지에 의해서 대안의 마린 반도에 이어지며, 동쪽은 샌프란시스코만을 넘어 오클랜드와 마주보고 있다. 주요 관광대상은 골든게이트 브리지 ·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베이 브리지 · 차이나타운 · 골든게이트 공원 · 케이블카 · 어시장 · 시청사 · 오페라 하우스 등이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세계 각처에서 많은 인종이 모여들어 동일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국제 도시이다.



금문교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골든게이트 해협을 가로질러 샌프란시스코와 북쪽 맞은편의 마린카운티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주홍빛의 다리다. 금문교를 감상하기 좋은 위치는 시간에 따라 다른데, 오전에는 다리 아래 쪽의 포트포인트가 좋고, 오후에는 마린카운티 쪽의 조망대인 비스타포인트에 오르면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으며, 저녁에 서쪽의 베이커스 비치에서는 아름다운 석양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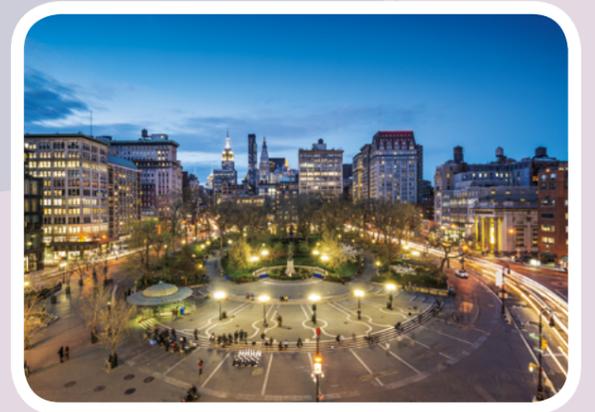
요세미티 국립공원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해발고도 약 4,000~6,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와 세쿼이아 삼림, 요세미티 계곡 등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산악 공원이다. 198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미국에서 손꼽히는 리조트이기도 하다. 공원 안을 돌아보려면 벨리 셔틀이라는 무료 셔틀 버스를 이용하거나 버스 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버스 투어는 셔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먼 곳도 갈 수 있다.



피어39

샌프란시스코만 연안에 있는 2층 목조건물로 부두 위에 건축되었다. 총 면적 0.18km²의 대형 쇼핑센터로 브랜드 상점과, 레스토랑, 선물가게 등이 입점해 있다. 일대에 수족관과 회전목마 등 유흥시설이 있어 샌프란시스코만 최대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에인절 아일랜드, 알카트라즈, 골든게이트브리지 등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관광명소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주변에 바다사자가 서식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거리 예술가와 밴드가 공연을 한다.



유니언 스퀘어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에 있는 대 광장. 광장을 중심으로 여러 블록에 걸친 쇼핑가와 호텔 및 극장가를 통상 유니언 스퀘어로 칭하기도 한다. 유니언 스퀘어와 그 일대에는 백화점, 고급 디자인숍 및 화랑 등이 밀집해, 미국 서부에서 가장 큰 쇼핑가를 이루고 있다. 유니언 스퀘어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 대중 콘서트와 이벤트, 연례 크리스마스트리 점화 등 다양한 시민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된다.



트윈 피크스

높이가 비슷한 두 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트윈 피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샌프란시스코에는 43곳의 언덕이 있는데 그 중 트윈 피크스는 비교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다. 언덕에 올라 바라보는 전망이 좋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언덕에 오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전경이 한 눈에 펼쳐지며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강하고 차가운 바람이 분다.



알카트라즈 섬

알카트라즈 섬은 연방 주정부의 형무소로 쓰였던 곳으로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악마의 섬'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이다. 빠른 조류와 7~10도의 차가운 수온 때문에 해엄을 친다해도 살아서 탈출할 수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형무소가 폐쇄된 지금은 투어 장소로 여행객들을 받고 있다. 피셔맨스 워프에서 페리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인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알카트라즈 섬으로 향하는 페리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영어회화 표현

출입국심사 시

What's the purpose of your trip?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I'm here on vacation.

- 휴가차 왔습니다.

How long will you stay?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I will stay for a week

- 일주일 머물 예정입니다.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에 머무르실 예정입니까?)

I will be staying at the 'H' Hotel'

- H호텔에서 묵을 겁니다.

Where can I get a departure card?

- 출입국 카드는 어디서 받나요?

Where is the immigration counter?

- 출국 심사는 어디서 하나요?

숙소 체크인/체크아웃

I'd like to check in

- 체크인하고 싶습니다.

Here is my reservation information

- 여기 제 예약 정보입니다.

I'd like to request an extra bed.

- 침대 하나 추가해 주세요.

Could you bring my luggage up to the room?

- 짐을 방까지 좀 부탁해요.

What time do I check out?

- 체크아웃은 몇 시에 하나요?

Could you keep my luggage until this evening?

- 저녁까지 제 짐을 보관해 주실 수 있어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의 생활 (TMI) &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언택트)

신조어 'TMI'와 '언택트' 알아보기



신조어는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만들어 낸다. 그렇다면 신조어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기존의 단어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2030세대이고, 그들은 기존 세대와는 달리 자신들만의 표현방법으로 시대를 표현하길 원한다. 이번 호에 알아볼 단어 역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기성세대 역시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니 그 뜻을 알아보고 젊은 세대와 소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TMI



의도치 않게 타인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게 되었거나 사소한 것까지 알게 되는 경우 사용하는 'Too much information(너무 과한 정보)'의 줄임말이다. TMI는 보통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내용이거나, 달갑지 않은 정보,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 사용한다. 예컨대 누군가가 자신의 화장실 습관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을 때, 그만하라는 의미에서 "TMI"라고 말하는 것이다.

파생어 : 설명충(설명과 별례의 합성어로 딱히 풀이할 필요가 없는 사안까지도 진지하게 설명하려 하는 사람을 비꼬아서 이르는 말)



TMI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던 말로 원래는 상대방이 매우 부정적이고 역겹거나 괴상한 말을 했을 때 표현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거나 많은 말을 할 때 사용해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쓰여진다.

TMI는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사용하는데,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 성격적으로 예민해서 자신의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신체 반응과 증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못지않은 전문용어로 자신들의 신체 증상을 이해하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현재의 상태와 증상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증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고 부작용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야기시켜서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회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과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여기저기 수많은 정보를 섭렵할 수 있는 요즘 시대에 타인이 필요치 않은 정보까지 전달해서 서로의 관계가 서먹해질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끔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기 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만히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어떨까.

언택트



언택트(untact)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 반대를 뜻하는 언(un)을 붙여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형태로 정보와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지난 호에 소개되었던 '인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스스로 '아웃사이더'가 되어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유의어 : 아웃사이더(인사이드의 반대말로 사람과의 접촉을 일부러 피하거나 또는 타의로 인해 접촉을 못하게 되는 사람)



'언택트 문화'는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인들이 관계로 인한 감정소비를 줄이기 위해 '언택트족'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데,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무인계산대로 시작해 PC방, 병원, 헬스장, 영화관, 패스트푸드, 주차장, 고속도로,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택트족을 사로잡았다.

다만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 감소와 노년 소외, 정서적 부재 등이다.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또 디지털정보 소외 계층이 언택트 환경에서 겪는 불편함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광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서로 간 정서적 교류 확대를 위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며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리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무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생활환경이 늘어나면서 타인과의 접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언택트'를 지향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를 느껴보도록 하자.

세계의 교정 소식

이슈가 되는 세계 교정 뉴스를 살펴보자

교정을 유심히 바라보면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국 내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정>지 '글로벌 핫클 릿'에서는 세계 교정 관련 이색 소식을 살펴봄, 그 소식이 담고 있는 의 미와 우리나라 교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 6개월 이하 형 폐지

영국 정부가 징역 6개월 이하 형을 폐지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단기 징역형은 범죄자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늘어난 수감자로 인해 감옥 내 환경 역시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로리 스텐버그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단기 징역 형은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지만 교정하지는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3~4주 동안 감옥에 수감하면 그들은 집과 직업, 가족, 명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6개월 이하 징역형이 폐지된다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 매년 3만 명가량의 범죄자가 형을 면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력범이나 성범죄자는 이 같은 계획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옥에 수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기준 영국 내 수감자는 8만 명이 넘는데, 이는 1990년대에 비해 2배 늘어난 수준이다.



경제적 학대도 가정폭력

영국 정부는 경제적 학대 행위를 가정폭력의 정의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변화'라는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학대를 '경제 자원을 취득·사용·유지할 능력을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권을 빼앗거나 취업을 방해하고, 집에서 내쫓는 등의 간접적인 학대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시안 호킨스 '여성 지원(Women's Aid)' 재단 대표는 "지금까지 경제적 학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경제적 학대가 가정 폭력의 핵심이라고 지목한 이번 법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학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계속 의존하게 만들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게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성인 200만 명이 가정폭력을 겪는데, 이들 중 130만 명은 여성이고, 이중 경찰에 인지된 가정폭력은 60만 건에 불과하다.



팟캐스트 통해 21년 만에 가석방

미국에서 무장강도 미수 혐의로 3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수형자가 교도소 생활을 주제로 한 팟캐스트를 통해 21년 만에 가석방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47세의 월터 이어론 우즈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있는 샌퀀틴 주립 교도소에서 풀려났다. 1997년부터 수형생활을 했던 우즈는 2017년부터 '이어 허슬'(Ear Hustle · 도청)이란 팟캐스트를 제작, 2주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린 결과 지금까지 대략 30개의 에피소드가 2천만 회나 다운로드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우즈는 죄를 지을 당시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동료들에게 귀감을 보였고, 팟캐스트를 통해 교도소 내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가석방의 의미를 밝혔다. 우즈는 작년 11월 30일 출소했고, 올여름에 나올 '이어 허슬 시즌4'에서는 우즈가 21년간 떠났던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 모습과 다른 장기복역 후 출소자들의 인터뷰를 담을 예정이다.



수감자에서 변호사가 된 남성

미국에서 한때 교도소에 갇혔던 한 남성이 최근 변호사가 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현지 언론은 수감자 출신이라는 이력을 지닌 레이먼드 번스 변호사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몇 년 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스포츠 용품 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의 성실함을 본 매니저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해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번스는 플로리다 애틀랜틱대학에 들어가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 성공했고, 노바사우스이스턴대 법대를 나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것이다. 2018년 11월 26일 플로리다 변호사협회로부터 정식 회원임을 인정하는 증서를 받았는데, 증서 수여는 과거 그를 변호했던 타넨바움 변호사가 직접했고, 타넨바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그의 이야기가 화제에 오른 것이다. 대다수 네티즌은 번스 변호사의 사연에 호평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곤경에 빠져 미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꼭 이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란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있다"고 말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교정시설

‘귀신바람’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청송 지역의 바람은 칼바람으로 유명하다. 취재하러 간 날 역시 강풍이 불며 추위가 뻗속까지 파고들어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첫인상은 활기찼다. 모든 직원이 반가운 인사를 시작으로 여민 교정 팀을 맞이해주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멀리까지 와주셔서 고생이 많았어요”라며 인사를 건네는 정병현 소장과 교정 공무원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언 몸이 스르르 녹는 듯하다.

청송 지역은 지방 도시 중에서도 문화시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외지다. 쇼핑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면 1시간 거리의 안동으로 가야만 하는 정도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 때문에 이곳에 근무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도 교정 시설 내에 직원들의 활력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정병현 소장이 명쾌하게 답해주었다. 바로 ‘직원 간의 소통’이다.

“문화적 시설이 없다 보니 직원들이 일할 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 끝에 ‘직통 소통함’을 만들었어요. 직원들의 고충과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답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줄고 직원 간에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활기가 넘치지 않을까 생각한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직통 소통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병현 소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며 설득한 끝에 조금씩 건의사항을 달기 시작하면서 불합리한 업무 관행들이 조금씩 해소되어갔다.

최근에는 ‘행복게시판’을 만들어 직원 간의 소통을 장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 건의란을 만들어 그곳에 올라오는 의견에 소장을 비롯해 각 과의 과장들이 직접 검토하고 답변을 달아주고 있다. 또

서로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을 만들다

경북북부제1 교도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제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 진리를 열심히 실천하는 곳이 바로 경북북부제1교도소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동료 간, 교도관과 수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행복한 직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청송 지역주민과도 소통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교정시설이 되고 있다. 지금,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직원 대상으로 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직원들의 복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 현재 직원 숙소 17동을 운영하고 있고 노후된 직원 숙소의 리모델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14개의 동호회가 운영되며 직원 대부분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결실을 보았는데, 2018년 하반기에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젊음과 연륜의 조화, 교정공무원 양성소

행복한 직장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직원 392명 모두가 자신들의 업무를 책임감 있게 처리하고 있는 덕분이다. 실제로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타소로 전출 간 직원들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만큼 수용질서가 잘 잡힌 기관이 없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할 정도다. 그만큼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직원들은 원칙에 따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교육을 받고 발령을 받은 신입 교정공무원들의 열정과 선배들의 연륜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신입 교정공무원들은 서툴지만, 열정을 다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팀장급의 교정 직원들은 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교정공무원 양성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총무과 권혁춘 교감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타 지역에서 온 신입 교정공무원들이 많아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자신들의 연고가 있는 교도소로 가면 누구보다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곤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일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만큼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료들이 서로 잘 이끌어주는 끈끈한 동료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역주민과의 소통, 청송을 대표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직원과 수용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소통으로 '시장 가는 날'을 꼽을 수 있다. 여민 교정 팀이 취재를 하러 간 날도 직원 2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진보시장으로 향했다. 그들이

버스에서 내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옛날과자를 판매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사탕, 과자 등을 구매하고, 다시 빵과 과일을 구매하는 곳으로 이동했다. 이미 진보시장에 어떠한 가게가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어떤 직원들은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요즘 장사는 어때요? 많이 어렵죠?"라며 너스레를 떨며 건네자 상인들은 웃음으로 답한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시장 가는 날'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하게 교도소에서 지원하지 않고 개인 사비를 들여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개인 사비로 구매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장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직원들끼리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를 많이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구매하지도 않는데, 저희가 구매할 때마다 상인분들이 덤을 많이 주셔서 항상 미안해요." 지역과의 소통은 이것만이 아니다. 관내에 소재한 지역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것. 2008년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장학금만 1억 8천여 만 원이 된다.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청송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통'을 통해 직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수용자들의 수용질서를 확립하며, 지역주민을 응원하고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이들의 소통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그들의 소통이 앞으로 더 빛을 발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교정공무원 mini 인터뷰

직원들의 경북북부제1교도소 자랑대회

교사 구본탁



처음 부임해서 온 교정공무원들이 배울 게 많은 곳이에요.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수용자들을 대하는 방법, 동료들끼리 조화롭게 지내는 방법 등등. 이곳은 '교정공무원 양성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사 구동우



처음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게 많잖아요. 훌륭한 선배들과 동료들 덕분에 실무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여러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점들이 저희 교정시설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해요.

교사 김남구



청송이라는 지역이 문화적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 근무환경이 어느 교정시설보다도 열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자기계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교도 임우중



어느 교정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정시설은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예요. 선배들과 동료 모두가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 대표 교정시설이라는 자부심을 직원 모두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도 정성운



선배, 동료 간의 불협화음이 없다는 점이 저희 교정시설의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답니다.

간호서기 이지숙



다른 교정시설보다 젊다는 점이 저희 교정시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직원분들이 젊다 보니 열의와 활력이 넘쳐요. 그만큼 생기가 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때문인지 무엇이든 열심히 해요. 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활력을 얻게 되고, 한 번씩 저 자신도 돌아보기도 해요.

국민 mini 인터뷰



사탕가게 박상현 대표

매달 한 번씩 교정직원분들이 오셔서 장을 보고 가세요. 경기가 어려워 시장 상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정직원분들의 마음씀씀이가 참 고맙죠. 매출에도 영향을 주지만 '힘내라'는 응원이라고 생각하니 심적으로 든든하죠.



빵가게 김영호 대표

고마운 일이지요. 진보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 우리 상인들은 고마워요. 지역을 대표하는 교정시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욕망과 권태 사이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욕망의 덩어리들이다.
불현듯 찾아오는 욕구 더군다나 그것이 억제되어야 하는
욕망 일 때
즉 눌러 버려야 할지 팍 터트려 버려야 할지 망설일 때
갈등에 시달리며 결핍감에 괴로워하게 된다

고민 끝에 뇌가 시키기보다 몸뚱어리가 시키는 대로 막상
저지르게 되어
그 욕망이 성취 되었을 때 짜릿한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

그런데 그 충족감이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욕구가 채워져 차오르는 잠깐만 환희의 미소를 지을 뿐이다
이런 행복감은 하고 싶어 했던 욕망이 채워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라진 빈자리는 심심함으로 대신 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태로워져 몸을 비비 꼬게 된다

우리는 번뇌를 자양분 삼아 살아갈지 모른다
번뇌가 없으면 멍청해지고 지루해하기 시작한다
걱정되고 괴로운 것이 없으면 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분해하고 단조로워한다
사람들은 괴로움과 갈등을 겪을 때라야 존재감을 느끼며
확인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권태감은 한동안 지속 되다가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사물이 나타나서 허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다시 나타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며 권태감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심해 몸이 근질거리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먹잇감을 찾아낸 맹수처럼 새로 나타난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고 싶어 안달복달 하게 되고
채워지지 못하는 욕구 때문에 다시금 괴로워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수도 없이 오가는
시계추 같다고 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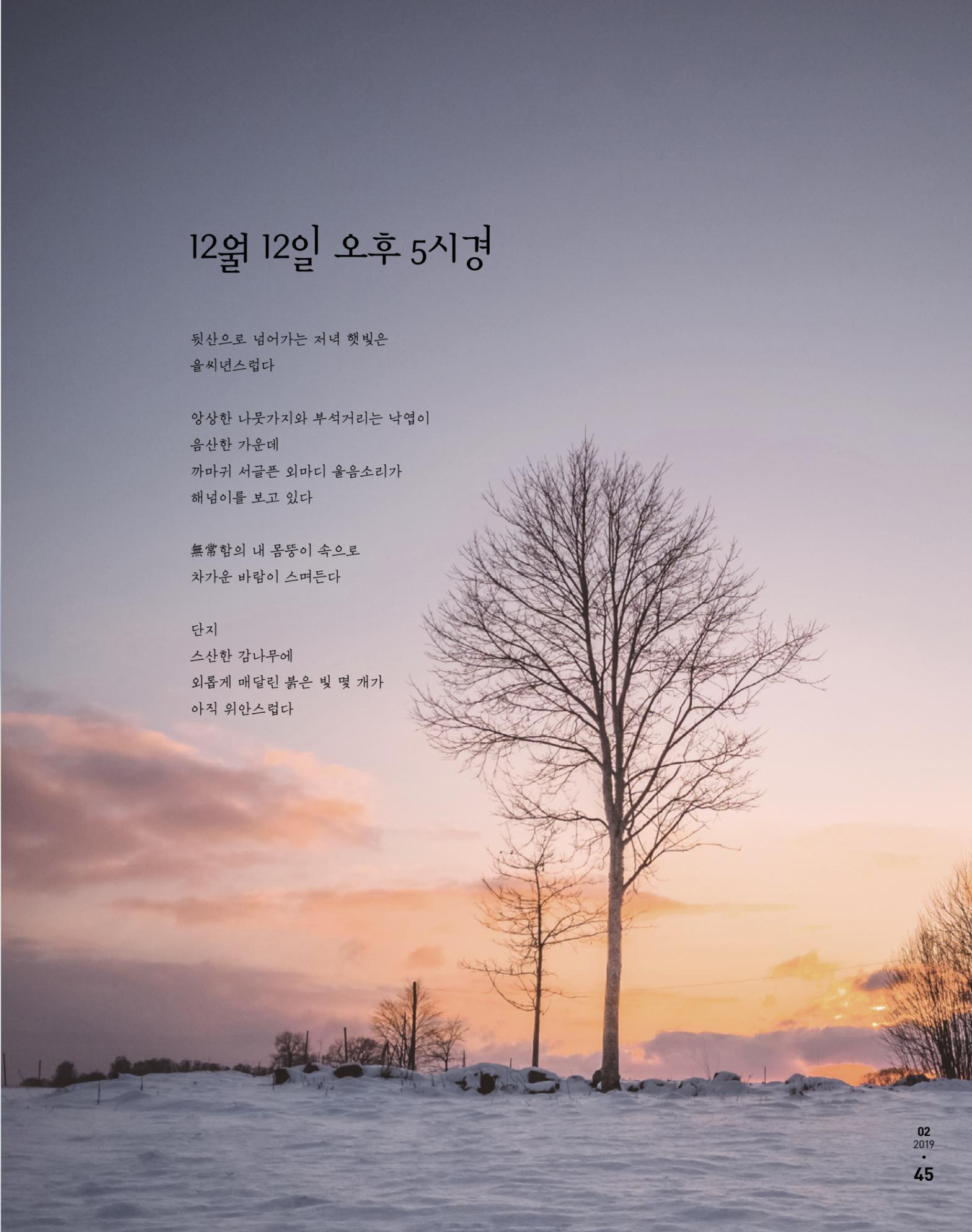
12월 12일 오후 5시경

뒷산으로 넘어가는 저녁 햇빛은
을씨년스럽다

양상한 나뭇가지와 부서져리는 낙엽이
음산한 가운데
까마귀 서글픈 외마디 울음소리가
해넘이를 보고 있다

無常함의 내 몸뚱이 속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든다

단지
스산한 감나무에
외롭게 매달린 붉은 빛 몇 개가
아직 위안스럽다



원망을 희망으로 돌려준 감사한 분들

저는 33세의 나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21년 전 청소년 때부터 이곳(교정시설)을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매 번 들어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다짐을 했었지만 그 다짐은 항상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항상 피해 회복에 힘을 써주셔서인지 항상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관하게 됐고, 그런 생각들로 인해 전과가 하나둘 늘어나 지금은 몇 개나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매 번 1년 안에 나갔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곳에 출입하는 횟수는 줄지 않았고, 항상 일을 저지르고 생각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해 이 교도소, 구치소라는 곳이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저는 3년 6개월이라는 지금까지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밖에서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때문인지 저는 출소만 하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형을 마치고 출소해서 내내 기다려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가장이라는 무게와 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커서였는지 저의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내 가정을 지키는다는 명목하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가정을 산산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하고 생각한

때에는 멈추기에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죄의 대가로 다시 수감을 차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면서 나 자신이 한심하기 짝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의 긴 시간을 기다려준 아내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어 동부구치소에 들어온 날 저는 제가 20여 년 전 처음으로 죄를 짓고 들어온 것이 당시 성동구치소 지금의 동부구치소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20년이 흐른 지금 저는 결혼해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성동구치소는 옛 모습을 감춘 채 새로운 건물과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신입방에 들어가 늦은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1년 4개월 동안 행복한 꿈을 꾸 거야. 나는 여기가 맞아”라며 스스로 위안 아닌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가정이 생기고 많은 것이 변한 저는 하루빨리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부모님을 뵈니 합의 얘기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선변호사님과 판사님의 도움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연락할 방법을 알아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대에 시작한 방황이 30대가 될 때까지도 이어졌고, 저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렇지만 전

이곳에 들어오면서 피해자분들께 그저 죄송하다는 마음만 갖고 있었지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분들께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온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다해 모든 피해자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발송하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피해자분들의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그렇게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으면 하루빨리 출소해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천천히 변제 하세요.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셨고, 또 다른 분께서는 “당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저의 잘못이 크죠. 당신 덕분에 인생 경험 한번 했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죄짓지 말고 착실하게 사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면회 와서 욕하시는 분, 언제 변제 해줄 거냐며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역시도 직접 뵈니 정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창피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말 여러 피해자분을 직접 뵈고, 편지를 받으면서 희망 어린 말과 비난을 받다 보니 그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 닿았고, 누군가가 망치로 뒤통수를 때린 것 마냥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동부구치소로 보낸 이유가 제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그만 멈추라는 뜻 같이 여겨졌던 것입니다.

‘교정 희망의 백일장 II’는 수용자들의 수필로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책의 글로, 또 때로는 출소 후 희망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글로 채워집니다.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길로 들어선 수용자들이 참회하고 교화되어 출소 후 떳떳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정말 독하게 살 것입니다. 출소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짐들은 항상 들어올 때마다 하는 것이었지만 피해자분들을 직접 뵈고, 용서와 비난을 몸으로 겪으면서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생겼습니다. 희망을 심어준 피해자분들, 아들처럼 동생처럼 타박해주는 피해자분들, 이분들에게 평생을 살면서 맘으로 변 돈으로 보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다짐하게 됐습니다. 21년 전에 시작한 이곳 생활, 이쯤에서 그만두고자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힘들게 이룬 내 가정을 지켜 가며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피해자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은 시간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인생 후반전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점점 변해가는 내 자신을 보여드리며 피해자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下)¹⁾



4. 일본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

1) 일본의 교도작업 개관²⁾

일본의 교도작업 또한 수용자에게 근로활동을 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케 하는 한편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규율 있는 생활태도와 준법정신을 고취, 공동생활에서 자기역할 및 책임을 다하게 하고 가능한 한 직업적 기능 및 지식을 부여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도작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법상 정역 또는 이른바 환경처분으로서 취업의무를 진 징역수용자 및 노역장유치자 외에 취업할 의무는 없지만 청구(신청작업)에 의해서 작업에 취업하는 금고수용자, 구류수용자 및 미결구금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2016년 3월 말 현재 일본의 교도작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77개 형사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약 48,000명의 수용자가 취업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교도작업 수입은 40억 엔이며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수용자는 1일 8시간의 노동을 통해 작업보장금(작업장려금)으로 1월 당 평균 약 5,317엔을 받고 있다.³⁾ 이들 수용자는 개인의 적성에 따라 목공, 인쇄, 양재, 금속, 가죽공 외에 각종 업종 중에서 적당한 업종을 지정받아 취업하고 있다.

2) 교도작업의 형태⁴⁾

교도작업의 형태는 생산작업, 사회공헌작업, 직업훈련, 자영작업 등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생산작업은 제작작업(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의 물품인 작업) 사업부작업(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형무작업 협력사업부 물품인 작업) 및 제공작업(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전부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물품인 작업 또는 국가가 수용자의 노무만을 제공받는 작업)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둘째, 사회공헌작업은 수용자의 노무를 사회에 제공하는 작업이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수용자가 실감함으로써 개선 갱생 및 원활한 사회 복귀에 이바지하도록 형사 시설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을 교정국장이 승인한 작업이다.

셋째, 직업훈련은 수용자에게 직업에 관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하

게 하거나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말한다. 직업 훈련은 일본 정부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개선 갱생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직업훈련은 「수용자 등의 작업에 관한 훈령(법무성 훈령)에 따라 종합훈련, 집합교육, 및 자청(自序)훈련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용접과, 건설 기계과, 지게차 운전과, 정보처리기술과, 통신시설과, 이발과 미용과, 개호 복지과 등 52개 종목이 실시되고 있다.

끝으로, 자영작업은 회계작업(취사, 세탁, 청소 등의 시설 자영업에 필요한 작업)과 영선작업(시설 개수 등 직영공사에 필요한 작업)으로 나뉜다. 교도작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목공, 인쇄, 양재, 금속(기계가공, 조립), 자동차정비, 농경·축산, 임업, 화학공업, 제지, 종이세공, 편물·포대물, 요업, 가죽공, 방직, 식품가공, 잡공, 개방지역작업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 현재 약 2,200여 개의 민간기업이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3) 형무작업 협력사업부 작업⁵⁾

일본의 교도작업은 1983년 일본 정부의 행정개혁방침에 따라 종래의 교도작업 운영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일본정부는 같은 해 7월에 법무성의 산하단체인 재단법인 교정협회 내에 '형무작업 협력사업부'를 설치하였다. 이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에서는 3년간에 걸친 국가보조금을 기금으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도작업의 원자재 조달과 생산제품의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경우 1980년 이전에는 정부예산으로 교도작업을

1) 2019년 '교정' 이번호에 실린 하편의 글과 1월 호에 실린 상편의 글은 2018년 교정연구 제28권 제4호에 실린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이하는 허주옥, 위의 책, 524-526쪽 요약.
3)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의 형무작업 설명 http://www.moj.go.jp/kyousei/kyousei_kyousei10.html (검색일 : 2018. 10. 7.).
4)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의 형무작업 설명, 위 홈페이지 (검색일 : 2018. 10. 7.)
5) 허주옥, 위의 책, 525-526쪽 및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 교도작업(직업훈련) 시찰결과 보고서(2010. 11)",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요약, <http://www.corrections.go.kr/HP/TCOR/aim-news/imagesstor/11012-51.pdf> (검색일 : 2018. 10. 7.)

운영해 왔으나 1983년 일본형법 제12조에 따라 재단법인 교정협회가 법무성으로부터 형무작업제품 판매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등 교도작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의 본부는 동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64개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의 지방사무소가 있고, 형무작업제품(교도작업제품) 상설전시관이 36개 있다.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의 조직으로는 본부장을 중심으로 총무부, 영업부가 있으며 본부직원 24명을 포함해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1) 교도작업제품의 상표 개발

일본 정부는 종래의 교도작업제품이라는 딱딱한 명칭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널리 선전하고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교정협회 형무작업 협력사업(Correctional Association Prison Industry Cooperation)의 앞글자 조합인 'CAPIC'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생산된 교도작업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

(2) 교도작업제품의 유통기구

인쇄, 자동차정비, 금속 등 일부작업은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나 목공제품·가죽제품 등은 민간유통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한편, 정기 또는 수시로 지방을 순회하며 판매하는 직매회(直賣會)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근래에는 팩스나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늘고 있는데, 화장비누의 경우 연간 96,000점 정도가 판매되고 있으며, 된장의 경우 연간 69,000점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

(3) 작업보장금과 수당금

일본정부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교도작업에 대해 노임을 인정치 않고 있다. 다만 수용자의 노동에 대한 국가의 은혜적 급부로서 작업보장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0개의 작업등급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며 상여금 계산액에 따라 원칙적으로 석방 시에 이를 지급한다. 다만, 재소 중이어도 그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형무소 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이나 가족에게 보내는 송금 등에 사용하는 것은 이를 인정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에서 지급된 작업 포상금은 1명 1월당 평균 약 5,317엔이다.

수당금은 우리나라의 위로금·조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 수용자가 작업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그 유족 또는 본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수당금을 지급한다. 수당금 지급기준절차 등은 대동소이하며, 일본정부는 매년 취업 수용자의 수당금의 기준액을 인상하여 일반노동자의 재해보상금과 접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IV. 우리나라 교도작업 조직체계 개편 및 발전방안

1.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 구성 방안

1) 한국교정산업공사(가칭) 설립 방안

(1) 공기업으로서의 한국교정산업공사

교도작업이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특수법인인 공기업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가칭)'를 설립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조직 형태에 따라 정부부처형·주식회사형·공사형 공기업으로,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⁶⁾ 한국교정산업공사의 경우는 국가 공기업 중에서도 공사형 공기업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형태의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을 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입법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신설할 경우 법무부장관은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공공기관운영법」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⁷⁾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한국교정산업공사의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⁸⁾

(2) 한국교정산업공사의 조직

일반적인 공기업의 예에 따라 한국교정산업공사의 조직은 공사의 임

6) 이하는 네이버 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공기업' 요약,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94383&cid=46630&categoryId=46630> (검색일 : 2018. 10. 9.)
7) 동법 제7조 제4항에서는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원으로 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사장은 미국과 같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겸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공사의 책임경영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되, 「공공기관운영법」 제21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선임비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정행정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나 교도작업 담당인 법무부 직업훈련과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두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례와 같이 관련 정부부처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의 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여 교도작업관주의를 실천해나기야 할 것이다. 감사는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에 따라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원의 임기는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장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2조에 따라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2) 기존 특수법인 활용방안

위에서 살펴 본 한국교정산업공사의 설립방안은 막대한 예산투입과 함께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약칭: 교정동우회)와 교정공제회 등 기존의 특수법인을 활용하는 방안이 훌륭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교도작업사업부 신설

① 교정동우회 개황⁹⁾

교정동우회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퇴직한 교도관들이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 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

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교정동우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4조에 따라 교정동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채용의 조성 및 관리 사업,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그리고 이러한 사업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교정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따라 회장 1명을 중심으로 부회장 약간 명, 사무총장 1명, 이사 15명 이상 30명 이하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정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로 조직되어 있는데,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지회는 교정시설 소재지에 두고 있다. 한편, 교정동우회에는 본부, 지부 및 지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이고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이 해당된다.

② 교도작업 수탁의 법률적 근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정동우회가 방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도작업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문제된다.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4조 제6호에서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교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 제2조에서는 “교정업무”란 용어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수용자의 수용·관리, 교정·교화, 직업교육, 교도작업, 분류·처우, 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9)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kncova.or.kr/> (검색일 : 2018. 10. 9.)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교정동우회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및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정업무의 한 종류인 교도작업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③ 교도작업 수탁을 위한 조직구성

교정동우회가 법무부로부터 교도작업을 수탁받기 위해서는 가칭 ‘교도작업사업부’라는 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정동우회와 유사한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례를 참고로 하면 좋을 것이다. 1963년 7월 19일 법률 제1367호에 의해서 창설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중점을 두고,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본부를 두고 각 광역시와 도에 지회, 각 시·군·구에 연합분회,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두고 있다.¹⁰⁾ 재향군인회는 친목·애국·명예·안보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기복무 회원의 생활안정화 사업과 국군장병 및 전상용사 위문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안보교육 및 강좌, 포럼, 강연활동과 함께 국제재향군인회와의 안보의교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이러한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본부에 사무총장과는 별도로 경영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사업관리팀, 사업전략팀, 금융/재무팀, 자산관리팀으로 구성된 경영본부와 두고 있다. 또한 수익사업기구로 직영사업조직과 산하기업체, 복지회관을 두고 있다. 직영사업조직으로는 종합사업본부, 고속도로휴게소 사업본부, 향군타운 사업본부가 있고, 산하기업체로는 (주)중앙고속, 향우산업(주), 향우실업(주), 향우종합관리(주), (주)통일전망대, (주)충주호관광선, 재향군인회 상호회를 두고 있으며 복지회관으로는 울릉복지회관을 두고 있다.¹¹⁾

특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는 재향군인회 직영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 제조, 용역, 물류서비스를 비롯하여 친환경자재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사업1부, 사업2부, 관리부로 조직되어 있다.¹²⁾ 사업1부는 주로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2부는 용역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1부는 제조사업팀과 일반사업팀, 사업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사업으로는 전업사업단, 전선사업단, 증전기사업단, 안전장구공장, 목재가구공장, 식품사업소, 반월공장, 제2공장품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일반사업으로는 물류사업단, 문화콘텐츠사업단, 네트워크사업단, 특수사업단, 군사용역사업단, 환경관리사업단, 에너지사업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에서는 제조업으로 생산한 다양한 제품을

국방부, 방위사업청, 한국전력 등 주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한다면 교정동우회에서 운영하는 교도작업사업부가 미국 연방 교정산업공사와 같이 정부수요물자를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예상되는 문제점

위와 같이 교정동우회가 교도작업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교정동우회의 설립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통해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정동우회의 인적자원과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교도작업의 수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정동우회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사업초기의 자금마련 방안은 일본 법무성이 1983년에 교도작업제품판매를 재단법인 교정협회에 위탁하면서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사업부에 3년간에 걸친 국가보조금을 기금으로 독립채산제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교정동우회의 교도작업 수탁과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생산제품의 품목 선정과 물류 등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각 교정기관에서 직영작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우선 교정동우회에 위탁하되 당분간 물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교정공제회 교도작업사업부

① 교정공제회 개황¹³⁾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정공제회법」(2015. 8. 11, 법률 제13455호)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래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79년

10) 재향군인회의 주무관청은 국방부였으나 1992년 12월 2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으로 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재향군인회의 조직으로는 본부와 시·도회 시·군·구회, 해외지회 등이 있다. 본부는 기획관리·조직복지·호국안보·국제협력·홍보·행정관리·감사·비서·경영총괄본부사업 등 9개의 실·국과 현충사업단, 안보문제연구소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재향군인회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와 도에 17개씩 총 13개가 있으며, 해외지회 17개, 직장지회 27개, 시·군·구회 222개, 읍·면·동회 3,296개, 직장분회 72개가 있다. 재향군인회원은 약 850만 명이다. 이하는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大韓民國在鄉軍人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5512&cid=46628&categoryId=46628> (검색일 : 2018. 10. 9.)

1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 <http://www.konva.or.kr/sub0105.asp> (검색일 : 2018. 10. 9.)

12)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합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korecd.com/information/04.asp> (검색일 : 2018. 10. 9.)

4월 16일 교정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재단법인 교정협회로서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후생·원호사업, 공제사업, 장학사업, 수용자에 대한 교정교화업무 지원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이 1만 6천여 명에 이르고, 기금이 544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방대해짐에 따라 「민법」상의 법인만으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로 목적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아 특수법인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교정공제회는 이사장 1명, 이사 4명, 감사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무부, 사업관리부, 회원관리부, 자금운용부를 두고 있다.

② 교정공제회 교도작업사업부 신설

교정공제회의 경우는 교정동우회와는 달리 인적자원과 재정 측면에서 교도작업을 수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겠다. 교정공제회에서 교도작업을 수탁하여 운영한다면 그 조직과 경영의 예는 일본의 교정협회나 우리나라의 군인공제회의 그것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먼저, 교정공제회의 전신이 재단법인 교정협회였던 것처럼 교정공제회의 운영모델은 일본의 교정협회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1983년에 재단법인 교정협회 내에 형무작업 협력사업부를 설치하여 교도작업의 원자재 조달과 생산제품의 판매를 맡고 있다.

다음으로 교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공제회의 주요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 법률 제3698호로 「군인공제회법」이 제정·시행되어 1984년 2월 1일 창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17만 회원과 9.4조 원의 자산, 6개 산하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¹⁴⁾ 직영사업체인 군인공제회 C&C는 국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국방 M&S 개발, 국방 및 민간 분야 전산시스템(SI/NI)의 구축, 맞춤형 복지 제도, 국방복지카드 및 나라사랑카드의 관리대행과 인터넷 복지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식정보방, 사이버학위 및 군 e-learning 교육 지원, 군 및 기업고객 이동통신사업 등을 하고 있다. 법인체로는 엠플러스에프엔씨(주), 공우 이엔씨(주), 대한토지신탁(주), 한국캐피탈(주), 엠플러스자산운용(주) 등 5개 업체가 있다.

③ 예상되는 문제점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교정공제회가 교도작업을 수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다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서는

제4조 제6호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교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교정업무의 수탁에 관한 근거가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교정공제회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교도작업 수탁의 법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인공제회의 경우 「군인공제회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국군의 전력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채사업, 계화사업, 피복사업 등의 사업이 국군 전력향상을 위한 것으로 군인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도록 그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교정공제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교도작업 수탁이 교정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받기에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다.

2. 발전방안

1) 조직 및 인력의 재배치

현재 우리나라의 교도작업 시스템은 일선 교도소의 직업훈련과(구치소의 경우에는 수용기록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제이다. 또한 교도작업의 업무기능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직종별 담당제로 되어 있어 수주에서 납품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담당 교도관 1인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도작업 경영관리에 비능률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이 만들어지면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교정기관에서는 직업훈련과 조직에서 교도작업은 아웃소싱이 되는 것이므로 인력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직업훈련과는 수용자들이 관련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기존의 교도작업 담당 인력은 보안이나 교육 등 교정인력이 필요한 근무지로 재배치가 가능하여 인력증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작업장려금제도의 보완

새로이 설립되는 교도작업 조직에서 교도작업에 참여하는 수용자들에게

13) 자세한 내용은 교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maa.or.kr/home/index.do> (검색일 : 2018. 10. 13.)

14) 이하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요약. <http://www.mmaa.or.kr/contents.action?menuid=3> (검색일 : 2018. 10. 13.)

는 인센티브 부여 차원에서 현재의 작업장려금제도를 보완하여 작업임금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작업임금제라 함은 취업수용자가 노무를 제공한 보수를 권리로서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수용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인 보수를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데서 인정된다.¹⁵⁾

이와 관련하여 UN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76조에서는 “수용자의 작업에 있어서 공평한 보수의 제도가 취해져야 하며, 이 제도에 따라 수용자는 적어도 자기의 수입의 일부를 자기용도에 인정되어 있는 물품의 구입에 사용하고 또 그 일부를 가족에게 송부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하고, 이 제도는 또한 석방시에 수용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자금으로써 당국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입의 일부가 적립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작업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¹⁶⁾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형집행법 제73조에 따라 수용자의 작업수입금은 전액 국고수입으로 귀속하며 단지 수용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작업장려금만 인정하고 있다.

자유형의 목적이 수용자의 교화개신 작용에 있는 이상, 수용자가 제공한 노동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개선의 희망을 증대시킨다는 점, 수용자의 근로흥미와 노동의욕을 높이는 한편, 본인의 가계에 기여하고 가족의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석방 후의 생계준비금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가재정상 그 수용에 관한 여러 가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에서¹⁷⁾ 작업임금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¹⁸⁾

3) 교도작업 관용주의에 입각한 사업영역의 확대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은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와 같이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교도작업에 의해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수요에만 공급하고 개인이나 일반시장에는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인 교도작업 관용주의(矯導作業 官用主義, state use system)¹⁹⁾를 채택한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²⁰⁾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방위사업청의 ‘희망이음사업’²¹⁾ 사례와 같이 국가예산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방위사업을 비롯한 정부 수요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범죄피해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활동

한국교정산업공사나 교정동우회 또는 교정공제회의 교도작업사업부의 성공적인 운영은 국가의 예산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지만 경영성과로 나타나는 수익금의 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이러한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²²⁾ 이것은 가해자인 수용자가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념을 교정단계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²³⁾

또한 이러한 교도작업에 참여한 수용자가 출소를 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한국교정산업공사나 교도작업사업부에 취업할 수 있도록 특전을 부여하고 신규 직원 채용 시에는 장애인이나 편부모가정 자녀,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공익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5) 교도작업지원 산업클러스터 조성

산업클러스터라는 용어는 실리곤벨리, 이탈리아 북부의 섬유단지처럼 일정지역에 어떤 산업과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기업과 기관들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산업집적지역’을 말한다.²⁴⁾

15) 허주옥, 위의 책 546쪽.

16) 박재윤,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2) : 해설 및 전문」, 『교정』, 제148권(1988), 30쪽.

17) 허주옥, 위의 책, 546-547쪽에서 작업임금제 찬성론자의 입장 발췌.

18) 같은 의견으로는 박영규, 「한국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서울 : 한국생산업본부, 2011), 159쪽, 작업임금제의 찬반론에 대하여는 이백철 「교정학」(경기 : 교육과학사, 2015), 660쪽 참조.27) UNICOR Wins \$20 Million No-Bid Body Armor Contract, <https://www.prisonlegalnews.org/news/2011/sep/15/unicor-wins-20-million-no-bid-body-armor-contract/> (검색일 : 2018. 10. 6.)

19) 이 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건 및 자재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나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관리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도작업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고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교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려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교도작업 생산품이 일반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민간 기업이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을 가능한 회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허주옥, 위의 책, 539쪽; 장규원, 「교도작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2007), 1233쪽.

20) 동법 제5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조항을 두고 있다.

21) 희망이음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dapa.go.kr/dapa/na/nt/selectNInfo.do?bbsId=3268&ntSn=1922&menuId=678>(검색일 : 2018. 10. 10.)

22) 이와 동일한 취지로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허경미, 위의 논문, 159쪽.

23) 신유해, 위의 논문, 142쪽; 허경미, 위의 논문, 144쪽.

24)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산업클러스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9636&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 2018. 10. 13.)

국민들이 교정공무원을 응원합니다

“

우리 사회 속 숨겨진 영웅

사회초년생 임이정

어릴 적 자주 놀러 가던 친구 집에서 위인전 전집 세트를 본 적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삶을 보며 꿈을 키우고 친구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어머니께 왜 우리 집엔 위인전이 없냐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인전에 있는 인물들만 위인인 줄 아니? 지금 이 세상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삶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아”라고 하시면서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국경없는의사회, 소방관, 경찰관 등등. 제 어릴 적 영웅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다 문득 얼마 전 다큐멘터리를 보고 ‘교정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어요. 새삼스럽지만 저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흔히 뉴스나 매체에서 범죄자의 구속 여부와 형량에 관심을 두지, 이들의 선도와 사회 복귀를 돕는 이들의 활약을 잊기 쉽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요즘 각박한 현실 속에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용자 과밀 현상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글을 읽고 있을 ‘교정 공무원’ 여러분 모두 우리 사회 속에서 숨겨진 위인이자 영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용자 관리와 재사회화라는 엄중한 직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교도작업지원 산업클러스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교도작업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집적(産業集積)단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신축이전하는 경우에 교정시설 구외에 개방지역작업장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정시설 인근에 교도작업장의 적절한 위치와 규모를 정하고, 새로운 교도작업 조식을 비롯하여 교도작업과 관련한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교도작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산업집적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교도작업 지원체계를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고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정시설 신축이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몇 년 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새로이 신축이전하게 되는 대구 교도소 인근에 창조경제형 수용자 재활특구를 조성방안을 연구하여 발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²⁵⁾

V. 맺는말

지금까지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선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먼저, 별도의 특수법인인 한국교정산업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법무부의 교도작업을 수탁하게 되는데,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한다.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교도작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가칭「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와 교정공제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교정동우회와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고 법무부로부터 교도작업 업무를 수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교정동우회의 경우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제4조 제6호에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

받은 사업”을 교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교정업무의 수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공제회의 경우에는 「교정공제회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이 단점이다. 다만, 인적자원과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정공제회가 교도작업 수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존의 특수법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교도작업 위탁부터 사업운영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교도작업 주무부서인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소속의 직업훈련과에서 교도작업관련 부서를 별도로 분리시키고 추후 교정청 승격 시에는 이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방안 중에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이라는 교도작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제품생산과 판매 등 경영과 관련된 업무에서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이 교도작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산업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 더 큰 경영성과를 이루어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한국교정산업공사와 같은 별도의 공기업 설립하는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았다. 교도작업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보니 다양한 사례와 시각을 소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사회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도작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25) 매일신문, “대구교도소 인근 창조경제형 재활특구 건의”(2015. 9.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02&oid=088&aid=0000411961> (검색일 : 2018. 10. 13) ; 수용자 재활특구는 수용자 재활사업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특구 개발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법무부)-지역공동체-지지체(대구광역시) 등 다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win-win) 형태인 국가(법무부)-지역공동체-지지체(대구광역시) 등 다자가 참여하는 상생협력(win-win) 형태의 ‘국가지원 수용자 재활특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교정시설(교도소) 내 부대시설(하드웨어) 및 교정프로그램(소프트웨어)과 연계한 창조경제형 특구개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성훈, 「실용수용자 재활특구 조성방안」(대구 : 대구경북연구원, 2015. 8), 99-110쪽 참조.

본부 소식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 대표단 교정본부 방문

지난 1월 21일 일본 법무성 시설과장 사토 아츠시 등 5명이 한국의 법무행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교정본부를 방문하였다. 이날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일본 법무성 대표단은 교정행정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였다. 일본 법무성 대표단은 다음날인 1월 22일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참관을 통해 한국의 선진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격의료센터, 교정기관 방사선 촬영사진 판독업무 실시

지난 1월 7일부터 원격의료센터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국 24개 교정기관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사진 판독업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추후 16개 기관이 협력병원과의 계약 등이 종료된 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실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이하여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 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합동 차례를 지냄으로써 조상의 음덕을 기렸다. 또한 각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들에게 제공하고, 고령자 위로 행사, 윷놀이, 제기차기를 비롯한 다양한 교화 행사를 실시하여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교정작품전시회 업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지난 1월 17일 대전교도소 회의실에서 교정작품전시회 업무담당자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성공적인 교정작품전시회 개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출품작 배정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등 3명과 출품기관 담당자 30명 등 총 39명이 참석하였다.

교정본부장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지난 1월 29일 교정본부장 등 4명은 의왕시 소재 공동생활 시설인 희망의 집, 명륜보육원을 방문하여 시설 아동을 격려하고 격려금품을 전달하였다. 설 연휴를 앞두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교정본부의 대국민 긍정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교정 홍보 브로슈어발간 및 배포

교정본부는 지난 1월 16일 교정 홍보 브로슈어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발간하여 전국 교정기관 및 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교정보호학과에 배포하였다. 교정본부의 비전 및 정책목표와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소개한 홍보 브로슈어는 향후 참관 등 각종 행사와 공무 국외 출장 및 국제회의의 참석 시 활용될 예정이다.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학위수여식 개최

지난 1월 17일 순천교도소 대강당에서 전문대학 위탁 교육과정 교육생의 학위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수여식에는 순천교도소장,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교정협의회장, 학위취득자 가족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19명이 커피 바리스타·외식조리과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선기관 소식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모범교도관 및 유공직원 포상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1월 30일 모범교도관 및 유공직원 15명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상식은 기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주변에 귀감이 되는 직원들을 선정하여 격려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자 진행되었다.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서울구치소는 1월 31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생활자들을 위문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서울구치소 소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설 생활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제53대 신용해 소장 취임식 개최

안양교도소는 1월 28일 제53대 신용해 소장의 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신용해 신임소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힘쓸 것이며, 직원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 증진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제23대 이영희 소장 취임식 개최

수원구치소는 1월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3대 수원구치소장의 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신임 이영희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

본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 신뢰받는 교정공무원, 서로 소통하는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직원 모두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1월 2일 2019년 사무식 및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소속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도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인천구치소는 1월 30일 노숙인재활시설인 은혜의집 등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 나눔 성금을 전달하였다. 성금은 약 4년 전부터 지금까지 매년 명절을 앞두고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복종우 교도관 호신술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 교육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8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교도관 호신술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신술 전문지도자 양성 과정은 호신술 연마를 통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증진하고 수용자 계호 시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개방지역작업장 증축식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월 17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방지역작업장 증축식을 개최하였다. 개방지역작업장은 직업훈련 수료자들이 사회적응을 위해 기술을 완성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정부교도소 | 교도 김주용 직원 건강을 위한 전문강사교육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1월 23일 박익생 심리치료센터장이 ‘정신건강, 웰빙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우울증 자가진단 및 적절한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환 법무연수원 로스쿨생 참관

여주교도소는 1월 17일 용인 법무연수원 검사교수와 검찰 심화실무실습과정 로스쿨생 등 6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날 참관은 교정 홍보 영상 시청에 이어 기결수용동, 지게차 훈련장, 집중인성교육장, 변호인 접견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교정 행정 절차와 수용자 처우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특히 집중인성교육을 통한 수용자 교정 교화 과정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들과 눈썰매장 방문

서울남부교도소 ‘나누리’ 봉사동호회는 1월 9일 아동복지시설 ‘에델마을’ 어린이들과 함께 눈썰매장을 방문하였다. 아이들은 하얀 눈밭 위에서 신나게 눈썰매를 타며 겨울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였고, 오후에는 식당에 들러 피자과 음료를 맛있게 먹은 후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원하였다.

춘천교도소 | 교사 신창훈 사랑의 헌혈 단체 행사 개최

춘천교도소는 1월 15일 청사 앞 헌혈 버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 단체 행사를 실시하였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 헌혈개발팀은 헌혈을 하려는 많은 직원들을 친절히 응대하며, 12시 까지 진행된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원주교도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원주시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을 방문하여 생필품, 온누리 상품권 등 위문금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위문금품 전달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돕기 위해 원주교도소 전 직원의 모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설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방문

강릉교도소는 1월 21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강릉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5곳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품권 등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위 장승호

2019년 기해년 사무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지난 1월 2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새해 시작에 앞서 전 직원이 참석해 기해년(己亥年) 사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사무식에는 부재중인 교도소장을 대신해 총무과장이 “2019 기해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무탈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김관순

연말연시 기부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1월 28일 자매결연 가족을 방문하고 전 직원이 모금하여 마련한 생필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사랑의 손잡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후원하고 있다.

소망교도소 | 배현승

신년업무보고 개최

소망교도소는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총무과 등 7개 부서 자체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각 부서는 2018년 업무 성과분석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올 한해에도 새로운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임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설 앞두고 이웃사랑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 ‘미소봉사단’은 설을 맞아 1월 21일 청사 청소원에 대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생계관련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위문금을 대구지방보훈청에 위탁했다. 그리고 1월 22일에는 사회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하여 정성껏 마련한 생필품과 위문금을 전달하였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설맞이 위문행사 실시

대구교도소는 1월 31일 설을 맞이하여 자매결연마을, ‘소망원’, ‘영생애육원’ 등을 비롯한 지역의 불우가정 학생 등 총 9곳에 대구교도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랑나눔 동아리 ‘대교희망지킴이’가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부산구치소는 1월 1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과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20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

‘장터 가는 날’ 행사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원들은 1월 28일 설을 맞아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장터 가는 날’ 행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전 사무부서 직원들이 동참하여 소설 및 드라마 ‘객주’의 중심배경이 되었던 진보객주시장을 방문해 저수용품류 비롯한 일상용품 등을 구입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황금돌섬 보라미 봉사단,

새해 봉사활동 실시

창원교도소 황금돌섬 보라미 봉사단은 1월 18일 인근 사회복지시설인 ‘소망원’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소망원 주변의 환경정리와 구내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부산교도소 | 교사 문수환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설을 맞이하여 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부산광역시 소재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 ‘소망 무지개동산’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교도소에서 자체 생산한 비누, 세제 등을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불우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하였다.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설 명절맞이 이웃돕기 실시

포항교도소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31일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총 3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엔 전달한 성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아 지역사회와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전달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행사 실시

진주교도소는 1월 30일 설을 맞이하여 ‘나눔이 봉사단’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금 100만 원을 대곡면사무소에 전달하였다. 한편, 진주교도소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묵묵봉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자매결연 6가정에 대하여 매월 78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명재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대구구치소는 1월 4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을 초청, 바쁜 업무 중에도 직원들의

대구지방교정청

자발적인 참여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혈액의 안정적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작년 10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실시되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청송새마을정비공장 시험작업 시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자동차정비 교도작업 연계 직업훈련장인 청송새마을정비공장에서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2개월간 시험작업을 시작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모범수형자 자녀 장학금 전달 및 가족 시설 참관

안동교도소는 1월 25일 오후1시부터 오후2시까지 소 내 사회복지과 인성교육실에서 모범수형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부모의 수용 생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심상현
사랑의 손잡기 결연 가정 성금 전달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1월 25일 사랑의 손잡기 결연가정을 방문하여 행복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 가정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성금을 전달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는 등, 지역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김천소년교도소는 1월 14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협조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유성
제39대 서민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1월 28일 제39대 서민 소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 서민 소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적법절차 준수,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한 직무수행 등 행정행위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제22대 도재덕 소장 취임
1월 28일 도재덕 전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이 제22대 울산구치소장으로 취임하였다. 도재덕 신임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정을 확립하고 더불어 공감하는 교정행정을 통해 수용자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하며 직원 상호 간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교정행정의 울산구치소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진
사랑의 성금전달로 이웃사랑 실천
경주교도소는 1월 29일, 30일 양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인근 마을 노인회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솔선하여 지역의 소외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웃과 하나 되는 끈끈한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해 마련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출소에정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실시
통영구치소는 1월 11일부터 7회에 걸쳐 출소에정자들을 대상으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강사들과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에정자들에게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설맞이 수용자 특식 기부
밀양구치소 교정협의회 박순구 교정위원은 1월 23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밀양구치소 전수용자에게 떡(500인분), 컵라면(2,000개) 등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밀양구치소 김철민 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교정협의회 박순구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설맞이 사랑의 행복나눔 행사 실시
1월 31일 상주교도소 '달팽이 봉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상주지역 소외계층을 찾아 행복나눔 행사를 가졌다. '달팽이 봉사단'은 상주교도소 인근 희망재활원 및 노인회관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였고,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2가정을 찾아 각 가정에 격려금품을 전달하였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제28대 대전지방교정청장 취임
1월 28일 제28대 대전지방교정청장으로 박병용 청장이 취임하였다. 취임사에서 박병용 청장은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이라는 기치 아래, 수용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정·교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지역 사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선진 교정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을 서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탈북 방송인 초청 통일·안보교육 실시
대전교도소는 1월 15일 탈북 방송인 유현주 강사를 초청해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유현주 강사는 이 날 교육에서 남한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북한의 생활 방식, 남·북한 사고방식의 차이 등을 진솔하고 유쾌하게 설명하여 직원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충주교도소 / 교위 박용규
단기기간제 근로자와의 간담회 개최
충주교도소는 1월 8일 단기기간제 근로자 18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기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구내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기획되었으며, 구내 참관, 소장님 인사말씀과 노고 치하,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행사가 진행 되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참관 실시
천안교도소는 1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참관을 실시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내 유일의 외국인 전담 교도소인 천안교도소를 방문하여 현황설명 청취를 시작으로 수용동과 작업장 등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용자 상담뿐 아니라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교정본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2019년도 신규 및 승진 임용식 개최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7일 2019년도 신규 및 승진임용식을 가졌다. 임용식을 통해 4명의 교위 승진자, 19명의 교사 승진자들과 함께 4명의 신규 직원들이 기존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고충·심리치료팀 사무실 개관
공주교도소는 1월 3일 심리치료 강화를 위한 고충·심리치료팀 사무실을 개관하였다. 신규 사무실은 심리검사실, 교육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임상심사 등 5명의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성폭력사범, 알코올 관련사범 및 동기없는 범죄자 등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치료팀의 치료적 역할 강화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사랑의 헌혈 실시
충주구치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충북 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하였다. 충북혈액원 관계자는 방학과 동절기라는 특성으로 혈액 수급에 차질이 적지 않다면서 이 날 헌혈에 동참해 준 충주구치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이동공동생활가정 방문
천안개방교도소는 1월 9일 천안시 소재 아동공동 생활가정 3곳을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 나눔의 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였다. 아동공동 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천안개방교도소는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에 꾸준히 위문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성교도소 / 교사 김성준
승진자 신고 및 신규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는 지난 1월 7일 각과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위 정상현 등 5명의 승진자에 대한 신고식 및 교도 황우정 등 3명의 신규 직원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계급장 수여, 꽃다발 및 신규 직원 명함 증정식 등 승진 및 신규 직원 임용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1월 7일 '청렴실천 결의대회'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실천 결의대회는 교정의 위상에 걸맞은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신규 임용된 직원들과 함께 2019년을 맞이하여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위해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1월 2일 새해를 맞이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운동에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 선서 낭독과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품위를 실추시키고, 자신과 가족, 직장에 불행을 남기며, 타인의 행복과 목숨을 빼앗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할 것을 다짐하였다.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운구 시무식 개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1월 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결의대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경식 청장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한 행복한 직장생활을 강조하였으며, '상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인화 단결된 광주지방교정청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광주교도소 / 교사 박승현 설 맞이 사랑 나눔 실천

광주교도소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은 성금으로 1월 22일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아동,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아동들을 격려·위로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김도훈 사진공모전 개최 및 청렴달력 제작

전주교도소는 1월 16일 깨끗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달력'을 자체 제작하였다. '청렴 달력' 제작은 직원들 스스로가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순천교도소 / 교위 윤선호 수형자 전문학사 19명 학위수여식 개최

순천교도소는 1월 17일 소 내 대강당에서 안호승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조후석 순천교도소 교정

협의회장 등 내·외빈과 졸업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자 19명에 대한 '2018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순천교도소 산업체위탁교육장 커피바리스타&외식조리과 재회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용 2019년도 시무식 개최

목포교도소는 1월 2일 2019년 기해년을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시무식에서는 행복하고 신뢰받는 조직,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상호 존중하는 교정문화 등 조직의 비전을 공유하고, 행복한 가정과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에 대한 덕담과 격려를 나누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보라미 준법교실 및 장학금 전달식 실시

군산교도소는 1월 16일 1430~1530까지 보라미 준법교실(군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법질서 준수 의식향상 및 교정행정홍보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군산교도소 직원 봉사단체인 한사랑 1%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학금 50만 원의 전달식을 실시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1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과 함께 소 내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보라미 철쭉 공원 조성

장흥교도소는 1월 9일 교도소 입구주변에 철쭉공원을 조성하였다. 이번에 조성된 공원에는 철쭉 20,000 그루를 비롯하여 개나리, 감나무 등을 식재하여 지역민은 물론 만원인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설맞이 지역사회 위문 방문

해남교도소는 설날을 맞이하여,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근 청신마을과 해남 등대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마을 환경정리 및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의 봉사활동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 선정

정읍교도소는 2018년 법무부 SNS 홍보 우수소속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정책홍보를 비롯해, 기관 내 행사 소개, 직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글과 사진 등을 게시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교정공제회



교정공제회 신임 임원 취임

교정공제회는 지난 1월 1일부로 홍남식 전 서울지방교정청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김동윤 전 춘천교도소장, 홍성천 전 천안개방교도소장이 신임 이사로 취임하였다. 홍남식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제회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공고히 하는 한편,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와 안전성이 높은 고수의 상품 발굴에 힘써 공제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국군교도소



수용자 정서순화를 위한 도자기 기증행사

국군교도소는 1월 24일 수용자 정서순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도자기 기증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엔 경북문경의 명인 도예가 김경선 씨가 부대를 방문하여 수용자를 위해 참을 인자가 새겨진 도자기를 기증하였다. 한편, 국군교도소는 지난 2018년 11월 kbs재능나눔단 위문행사에서 김경선 씨와 전통도자기 빛기 체험을 진행하였으며, 출소자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자 기증행사를 준비하였다.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여주교도소 교감 이진수

수형자의 가족관계 회복 위해 노력

수형자와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도하였다. 특히, 가족만남의 집·가족캠프 대상자 선발 시에는 가족관계가 단절되거나 위기를 겪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관계 회복 및 교정교화에 노력하였고, 개인시간을 활용해 가족만남의 집 환경정리를 하는 등 깨끗한 교정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수형자 인성교육팀장으로 수형자들의 수용생활 및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

원활한 관급물품 관리 및 직원 처우 향상 위해 노력

보안물품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직원 침실, 세면장 및 목욕탕에 비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보안과 내 각 수용동, 작업장,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지급함으로써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수용자 피복, 침구류, 식기 등 생활용품과 수용동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급하고, 도배 등 수용거실 환경을 개선하여 수용자의 처우 향상에 기여하였다.

대구



진주교도소 교위 여환석

지소 최초의 개방지역 작업장 신축에 기여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복지교감의 공식으로 인하여 물품업무 및 구입업무를 겸무하면서도 구외공장 입찰 및 계약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손조롭게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소 중 최초의 개방지역 작업장 신축에 공헌하였다. 또한 축구 및 테니스 동호회에 적극 참여하여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섰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임용호

대전

세심한 업무처리로 기관 협업 등에 기여

2017년 8월부터 수용기록 업무를 담당하며, 군산지청 및 군산지원과의 대외연락 시에 항상 친절하게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전화응대를 하여 법무유관기관 직원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 기관 협업 등에 기여하였다. 또한 수용기록업무의 특성상 매우 정교한 작업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해결해나갔는데 매진하는 등 교정행정발전에 기여하였다.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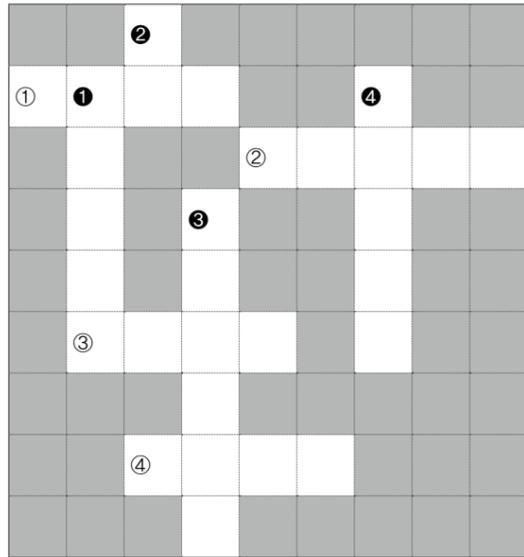


군산교도소 교위 이용형

교정 낱말퀴즈



월간 <교정> 이번호에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로열쇠

- ① 정약용이 집필한 저서로 수령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다양한 예시를 들며 제시한 책은?
- ② 승성신 회장이 열성을 다해 교정공무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단체는 대한민국 재향○○○○○이다.
- ③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 가계통신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 ④ 놀이 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아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는 편하게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세로열쇠

- ① 교정 ○○○○ 고도화 지속은 2019년 법무부 교정본부 중점추진 정책 중 하나로 인터넷 화상접견·스마트접견 통합 운영, 수용(출소)증명서 인터넷 발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② 이번 호 <교정>지의 테마 주제로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뜻의 두 단어는?
- ③ 세계적인 항만도시이자 국제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관광지 중 하나로 '악마의 섬'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곳은?
- ④ 매월 소득에서 빠져나가는 대표적인 고정지출비로 ○○○○만 절약할 수 있다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정답 보내실 곳 ★

독자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답을 적어 응모하시면 됩니다. 아래 E-mail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는 분께는 월간 <교정>에서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전화 02-2272-1190 E-mail correct2015@naver.com



유머시리즈



우리~ 웃으면서 살아요~!

항상 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생각되시나요? 웃을 일이 없어 안 웃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여유를 갖고 웃으면서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독자 분들을 위해 <교정>에서 준비한 유머시리즈를 감상하고 잠깐이라도 웃어보세요.

웃기는 집안

어느 교통순경이 신호위반한 차를 잡았습니다.
교통순경 신호 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운전자 창을 열면선 말한다.
운전자 좀 봐주세요. 낮에 술을 마셨더니...
교통순경 아니, 음주운전까지 하셨어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한 마디를 더한다.
아내 순경 아저씨 한 번만 봐주세요. 이이가 아직 면허증이 없어서 그래요.
교통순경 무... 무면허...?
 뒷좌석에 있던 할머니와 손자가 가세해 투덜거리기 시작한다.
할머니 거 봐라, 훗친 차는 얼마 못간됐지?
손자 내가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어!!
교통순경 ...

이상한 스승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첫 번째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건네며 물었다.
스승 무슨 냄새가 나느냐?
제자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스승 그것은 네 마음이 썩었기 때문이니라.
 스승은 두 번째 제자에게도 물었다.
스승 저 밤하늘이 무슨 색깔이고?
제자② 예, 검은색입니다.
스승 그건 네 마음이 검은 탓이로다.
 세 번째 제자에게는 마늘장아찌 간장 맛을 보여주며 물었다.
스승 무슨 맛이 느껴지느냐?
제자③ 짠맛입니다.
스승 그래, 그건 네가 짠돌이라서 그렇다.
 이어 스승은 그 옆에 제자에게 간장 맛을 보고 무슨 맛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머리를 굴린 제자가 점잖게 말했다.
제자④ 아주, 단맛이 느껴집니다.
 제자의 그 대답에 스승은 말했다.
스승 그래...? 그럼 원. 샷!



함께 만들어 가는 월간 교정



〈교정〉지는 독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교정〉지의 편집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의 소리

항상 〈교정〉지를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편집해 주시고, 시사와 정보가 골고루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 홍영삼 님(의정부교도소 교위)

〈교정〉지를 30여 년간 애독하는 교정인입니다. 이제 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사람으로 〈교정〉지가 새롭게 알차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권익선 님(여주교도소 교감)

〈교정〉지를 애독하고 있는 독자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국에 교정기관이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교도관들로부터 각 지역의 숨은 명소, 숨은 맛집 등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다면 더욱 풍성한 〈교정〉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성수 님(여주교도소 교위)

지난 호 퀴즈 정답

①세	②인	트	③제	임	스	파	크	
	싸		로					
			캠					
			프		④혈	염	산	⑤하
								트
⑥숫	타	니	⑦파	타				세
			국					이
			화					버

퀴즈 정답자

서행관 님(장흥교도소 교사)
 이대원 님(서울구치소 교사)
 이승용 님(부산구치소 교위)
 권동혁 님(여주교도소 교도)
 탁선곤 님(경주교도소 교도)

2019 월간 교정이 여러분과 더 가까워집니다!

WHAT? 2019년 월간 <교정>에 어떤 참여코너들이 있나요?

‘교정은 행복을 싣고’로 국민과 행복을 나누자!
 전국 기관의 교정인들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으로 국민들에게도 ‘행복’을 전달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교정인, 봉사 동호회는 부담 없이 신청해주세요!

‘영화 같은 하루’로 인생 추억을 남기자!
 가족, 동료,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활동, 이벤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추억을 담다’로 내 추억을 꺼내자!
 2019년 월간 교정 테마의 주제는 ‘심마음’ 테마와 관련된 나의 추억담, 과거의 사연을 짙막한 글로 보내주세요!

‘교정 희망의 백일장’으로 글쓰기 실력을 뽐내자!
 수필, 소설, 시 어떤 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로 독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세요!

‘날말퀴즈’로 상식을 쌓자!
 날말퀴즈도 풀고, 상품도 받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날말퀴즈를 풀고 정답을 응모해주세요!

‘독자의견’으로 월간 <교정>과 소통하자!
 월간 <교정>을 읽고 느낀 점을 보내주세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바라는 점 무엇이든 좋습니다.



월간 <교정>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경품을 드립니다!

HOW? 2019년 월간 <교정>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참여방법

엽서를 보내주세요!

월간 교정지에 마련된 엽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웹페이지 QR코드에 접속해주세요!

우측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0년**의 여망,
우리가 이어갑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민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